

UCI 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언설의 잘못
No.2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머리말

UCI (소위 “곽 그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2016 년 가을 무렵부터 일본에서 집회를 하면서 보급시키고 있는 김종석저 『통일교의 분열』(일본어 번역판)에는 참아버님을 알보는 “말씀 개찬”과 “오역”등이 산견됩니다.

먼저 한국어판의 『통일교의 분열』에서는 말씀을 그러모아 만든 “말씀 개찬”를 하고 있으며 그 말씀의 진의를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일본어 번역판은 그 문장을 자신들 주장에 맞도록 악의적으로 “오역”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은폐(隱蔽), 개찬(改竄)을 반복하는 역사에 남는 “독신(瀆神) 행위”

『통일교의 분열』(일본어 번역판)은 340 페이지에 달하는 서적이지만, 그 내용은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참부모님에 대한 믿음을 상실하게 만들어지도록 교묘하게 짜여지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통일교의 분열』(한국어 원본)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통일교의 창교자(주, 참아버님)의 아들 속에서, 후계자에 가장 적합한 인물은 삼남 현진이었다. 그는 자타가 공인한 통일교의 후계자이며(58~59 페이지), 외모를 볼 때도 창교자를 닮았고, 성격도 창교자의 성격을 닮았다. 그의 등장은 통일교가 재강화될 기회였다(60~62 페이지). 학력 등 그의 능력은 아버지와는 달리 하늘의 계시에만 의존하지 않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며, 통일교를 부흥시켜 줄 것이라는 희망을 불러일으켰다 (61 페이지). 또한 현진을 지지하는 곽정환은 공무 처리에 엄격하며, 입장을 주어져도 청렴한 생활을 하여, 공금 횡령이 한 번도 없었으며, 모범적인 인격자였다(87 페이지).

한편 사남의 국진은 곽정환을 요시찰 인물로 하고, 비리를 밝히려고 획책했으나(85~86 페이지), 국진은 거짓말쟁이이며, 창교자는 그의 거짓말에 대로했다(89 페이지).

칠남의 형진은 종교성은 있지만, 자신의 종교성에 의지하여 통일교의 전통을 왜곡함으로써 통일교의 정체성에 혼돈을 초래했다(103 페이지). 국진과 형진은 후계자에 적합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현진을 대신하여 통일교의 후계자 자리에 취하게 된다. 그 과정에는 “파크원 사업에 대한 문국진의 거짓 보고”가 있었으며(91 페이지), 창교자를 끌어들인 소송까지 제기했다. 이 사건은 현진을 쫓아 버리기 위한 음모였다(95~97 페이지).

그 음모의 배경에 “문현진의 등장을 위기로 느꼈을 가능성이 크다”(60 페이지), 제 1 세대(김효율 씨, 기타)의 저항이 있었으며(79 페이지), 또한 현진의 혈통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여, 창교자에게 영향을 미친 한학자의 존재가 있었다(116 페이지). 문인진의 미국 총회장 취임, 2009 년 3 월의 속초 사건도 음모에 의한

것이였다(119~120, 152 페이지). (주, 이것을 간결하게 표현하면 「참어머님 음모(陰謀)론」이라고 말할 수 있음) 그 책략에 의하여 삼남의 현진은 수많은 음모에 빠뜨리며, 후계자의 자리에서 추방되였다.

음모가 소용돌이치는 가운데, 후계자를 누구로 할지에 대해서 창교자의 태도는 불명확했다(70 페이지). 이 창교자의 태도가 통일교에 혼란을 초래하게 되었다. 또한 한학자는 창교자의 혈통을 의심하고 있으며(110, 309 페이지), 창교자에 대해 “불순종” 이었다(245~252 페이지). 창교자는 그것에 대해서 고심하고 있었다는 것이 진상이다.

창교자가 타계한 통일교는 위기를 맞고 있다. 창교자의 정체성이 한학자의 정체성에 의해 부정되고 있기 때문이다(318 페이지). 한학자 타계 후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320 페이지).(주, 이 서적은 참어머님이 돌아가신 후까지 의식해서 논하고 있음) 그러나 창교자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창의적으로 확대하고 디자인하려는 현진에 의해, 통일교인의 재활성화할 수 있게 될 것이다(323 페이지).

이상이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이 서적은 「참어머님 음모론」을 어떻게 해서든 뒷받침하려고, 요지 요지에서 말씀의 은폐, 개찬을 하고 있으며, 참부모님의 실체, 참아버님의 말씀과 어긋나져 있는 것입니다.

또한 총론적인 “한학자의 불순종”(245 페이지)이라는 항목에서는 참아버님 말씀을 18 개나 인용하고 있습니다만, 말씀선집의 원전(原典) 속에서 그것을 검증해보니까, 거기에 나오는 모든 말씀이 개찬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개찬 행위는 참부모님을 알보는 것이며,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잘못된 판단을 시키려는 역사적인 “독신 행위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님의 “후계자의 질서”는 명확하다

『통일교의 분열』에서는 「후계자를 누구로 할지에 대해서 창교자의 태도는 불명확했다」(70 페이지) 라고 하지만 그것은 사실과 다르며 참아버님의 후계자의 관한 질서는 명확했습니다.

2000 년 3 월 10 일, 참아버님은 80 세 때에 「선생님이 영계에 가게 되면 어머니가 책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아들딸이에요. 아들이 해야 된다고요. 아들이 없으면 딸이 해야 된다 이거예요. 후계자가 누구냐 하는 것은 벌써 전통적으로 다 (준비가) 돼 있어요」(말씀선집 318-260)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먼저 「선생님이 영계에 가게 되면 어머니가 책임하는」 것이며, 그 다음에 「아들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목해야 할 것은 「아들이 없으면 딸이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점입니다. 이렇게 참아버님께서는 상속자로서의 “후계”의 질서에 대해서 명확히 정하셨습니다.

또 참아버님이 70 세의 고회 때에 「내(주, 아버지)가 없더라도 어머니 앞에 제일 가까운 아들딸이 제 3 의 교주가 되는 것입니다」(말씀선집 202-83~84)라고

명언하셨으며, 그 위에 「선생님 혼자 있어도 부모님 대신이고, 어머니가 혼자 있어도 부모님 대신입니다. ‘레버런 문이 고회를 지나고 70 이 넘었으니까 후계자가 안 나와?’ 하는 그런 말은 집어 치워요. …그래서 선생님이 제 1 교주, 그다음에 어머니는 제 2 교주다 이거예요」(말씀선집 201-126)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70 세, 80 세 때, 명확히 후계의 질서를 말씀하신 것이 진상(眞相)입니다. 그리고 90 세 때에 참아버님과 「최종일체」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2000 년 3 월 31 일, 현진 님이 원리연구회 세계회장에 취임했습니다. 그 무렵부터 관계자가 현진 님을 참아버님보다 더 앞에 세우면서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은 그 해 5 월 31 일, 현진 님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전통을 따라서 어머니의 전통을 따라 가지고 세 번째가 아들이야. 그거 알아? ……어머니 전통을 세우기 전에 아들 전통을 세울 수 없다는 것을 알아?」(말씀선집 323-83)

이렇게 말씀하셨으며, 먼저는 아버지, 그 다음은 어머니, 아들은 세 번째라고 다짐하신 후에 「현진이는 내가 내세우는 거예요. 내세우는데 선생님보다 앞세워 가지고 보고하지 말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통일교회 작당 패(분파)가 돼요 ……무섭고 엄청난 일이에요. 그러니 전환시대에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말씀선집 323-91~92)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으로서, 먼저는 아버지, 그 다음은 어머니, 그리고 어머니 앞에 제일 가까운 아들딸이라는 것이 참아버님이 명확히 지도하시는 “질서”라고 말 할 수 있습니다. 아버님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세운 전통에 따라서 아들이 전통을 세우도록 충고하고 계십니다.

또 참아버님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시대가 무엇이나에 대해서 「장자와 차자는 어머니 이름 아래 절대복종해야 된다 이거예요. 복종하게 되는 것은 아버지와 연결돼요」(말씀선집 283-56, 일본어판은 『주요의식과 선포식Ⅲ』 151 페이지)라고 말씀하시며, 어머니를 통해서 아버지에게 연결되도록 지도하셨습니다. 따라서 후계 문제에 관해서 아버님의 태도는 불명확했다라는 것은 허위의 주장입니다.

『통일교의 분열』의 내용은 반대 목사들의 언설과 흡사

그런데 『통일교의 분열』을 읽고 우려하는 것은 거기에 나오는 주장이 이른바 반대파의 「참부모」를 불신시키려는 통일교회 비판과 놀라울 정도로 흡사하다는 점입니다.

일본 통일교회에서는 신자에 대한 납치 감금을 동반한 강제적인 탈퇴 설득 사건의 피해를 받았습니다. 그 때 반대 목사, 탈퇴꾼, 반대 변호사, 언론인들이 그 배후에서 가족들을 교사(敎唆)하는 등, 탈퇴 설득 사건에 관여해 왔습니다. 1993 년 3 월 6 일의 야마자키 히로코 씨의 실종 사건의 배후에는 아리타 요시후 씨나, 이시이 켄이치로오

씨 등 언론인에 의한 야마자키 씨의 입신 스쿠프(특종)가 있었으며, 강제적인 탈퇴설득 사건의 일익을 담당한 입장에서 보도가 이루어졌습니다 (참고: 오타도모히사, 미토마 요시오 공저, 『아리타 요시후의 편향 보도 전속력』, 겐진샤 출판).

『통일교의 분열』에 쓰여진 “스토리”는 반대파의 일익(一翼)을 담당하는 보도를 한 이시이 켄이치로오 씨의 “통일교회 비판”의 내용과 극히 흡사하며, 이시이 씨의 비판 기사를 일부러 135 페이지(일본어판)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리타 요시후 씨도 이시이 씨의 비판 기사에게 기고(寄稿)하고 있고, 「일본 간부들 중에는 삼남 현진 씨에게 따라가고 싶어 하는 동향이 있는 거예요. (현진 씨는) 원래부터 인망이 두텁다」고 말하고, 현진님을 너무나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두고 느끼는 것은 납치 감금을 동반한 강제적인 탈퇴 설득의 길이 어렵게 된 반대파가 가정연합과 다르게 움직이는 UCI 에 접근하여, 이제 그 배후에서 “가정연합 부수기”를 획책(劃策)하고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1993 년 3 월의 야마자키 히로코 씨의 실종 사건 전후에 반대파는 “통일교회 부수기”를 획책하고 수많은 통일교회 비판을 전개해 왔습니다. 야마자키 히로코 씨를 탈퇴 설득한 사람 중의 하나인 아사미 사다오 씨는 그의 저서에서 참아버님에게 형제자매가 있는 것을 근거로 아버님의 “무원죄”는 있을 수 없다고 비판하여, 식구들을 탈퇴 설득해 왔습니다.

그런데 현진님은 후술한 바와 같이, 2009 년 9 월 이후 참아버님 앞에 가지 않게 되고,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부터 7 년이 지나, 서적 『통일교의 분열』이 출판되고, UCI 측이 그걸 보급시켰습니다. 이 서적의 내용은 「참어머님 음모론」이고, 특히 「한학자는 창교자의 혈통을 의심하고 있」다라는 점을 중심 주제에 두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 『통일교의 분열』이 넓게 보급된 2016 년 끝무렵, UCI 측의 인물에 의해서 마치 참어머님이 아버님의 혈통을 의심하고 있는 것같은 정보가 세상에 퍼졌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잘된 일”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덧붙여서 말하면, 참어머님이 57 주년 「성혼 기념식」의 공적인 자리에서 「원죄 없이 태어난 독생자 독생녀가 하늘의 뜻을 받들어 어린양 잔치를 하는 날」(『세계가정』 2017 년 5 월호, 6 페이지)라고, 참아버님도 어머님도 같이 무원죄로 태어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UCI (소위 “곽 그룹”) 문제의 경위

1998 년 7 월 19 일, 현진 님께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세계 부회장에 취임하신 것을 보고, 신도 중에는 현진 님이 참아버님의 “후계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정연합의 가르침은 「참부모라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8 대 교재 교본 『천성경』 2400 페이지)라는 것이며, 인류의 참부모는 “영원히 한 쌍”이라는 것이고, 인류의 참부모에는 후계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2000 년 동안 예수님과 성신을 중심으로 걸어온 것과 마찬가지로, 천일국도

문선명·한학자 양위분이 영원히 유일한 인류의 참부모이시며, 그런 의미에서 “참부모”에 후계자는 존재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2008 년 4 월 18 일, 형진 님이 가정연합 세계회장 취임한 무렵부터, 현진 님은 참부모님의 지도와 지시에 따르지 않고 다른 행동을 취하는 것이 표면화하기 시작했습니다. 2009 년 3 월 8 일, 한국·속초에서 참아버님은 현진 님에게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 부모와 함께 생활하면서 원리를 배우도록**」, 「**GPF(활동)로부터 1 년 동안 휴식하라**」고 지시하셨지만, 현진 님은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같은 해 9 월 10 일을 마지막으로, 참부모님 앞에 모습을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한 박정환 씨도 2009 년 12 월을 마지막으로, 참부모님 앞에 모습을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2010 년 2 월, 현진 님은 GPF 대회를 개최하고, 이에 대해서 참아버님은 다시 「**GPF 대회를 하면 안 된다**」고 지시하셨으나, 그 이후에도 대회를 강행해 나갔습니다.

현진 님은 2010 년 4 월 27 일, 가정연합 및 관련단체의 자산을 관리하는 UCI(국제 통일교회, Unification Church International)의 이사회를 탈취하여, 참부모님의 지도와 허가없이 공적 자산을 매각하고, 정관도 개정하여, 「국제 통일교회, Unification Church International」의 명칭을 단순히 UCI 로 바꾸어, 통일교회 및 참부모님과 관계를 단절시켜, 그 조직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2011 년 5 월 25 일, 참부모님은 「**참부모님 선포문**」을 발표하셨으며, 그 가운데서 현진 님을 비롯한 UCI 이사진(현진 님을 중심으로 하는 그룹)에 대해 「**즉시 현직에서 물러날 것. 허락없이 공적 자산을 처분하여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즉시 참부모님께 반환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러나 현진 님은 그 지시를 완전히 무시하고, 다른 행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진 님의 재원(財源)이었던 가정연합 및 관련 단체의 자산에 대해서, 미국 법원이 2016 년 12 월 23 일, 「GPF 및 기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과 무관한 어떠한 존재 및 조직을 위한 어떠한 종류의 어떠한 기부도 금한다」는 임시 금지 명령을 내려, UCI 측의 자산 처분에 브레이크를 걸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통일교의 분열』에서는 「(현진 님은) **창교자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그것을 창의적으로 확대하고 디자인하려는**」(323 페이지)이라고 주장하지만, 영상 『UCI 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언설의 잘못 No.1』 (https://trueparents.jp/?page_id=3849)에서 설명한 것처럼, 현진 님이 말하는 정체성은 참아버님이 말씀하시는 정체성과 **모조리 엇갈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고인 카미야마 다케루 씨가 현진 님을 따르려고 했을 때에는 참아버님이 카미야마 씨를 부르시고, 2010 년 7 월 16 일, 소위 「보트 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현진이는) 이미 오래 전에 떠나간 거야, 십년 전에」, 「현진이는 선생님과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지 않다. 도망치고 있다. 현진이가 선생님의 방향으로 와야

한다는 거야」, 「왜 선생님한테 질문하지 않고, 현진이 쪽으로 가는가?」, 「현진이는 선생님과 똑같은 자리를 취하고 있다. 다른 아이들은 선생님을 중요시하고 있다」

현진 님이 말하는 정체성이 참아버님이 말씀하시는 정체성과 모조리 엇갈린 사실을 생각할 때, 아버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과 엇갈린 정체성을 주장하는 현진 님을 교육하려고 하신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사실, 2009 년 3 월 8 일, 한국·속초에서 아버님이 현진 님에 대해서 「현진이 너도 만 데 가지 말고 아버지한테 와서 아버지를 따라다녀!」(말씀선집 609-133)라고 직접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현진 님에게 참부모님에 대한 공부를 하라, 가인 아벨의 관계를 공부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아버님의 지도에도 따르지 않고, 전술한 바와 같이 2009 년 9 월 이후 참아버님 앞에 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버님의 정체성과 다른 내용들을 태연하게 주장하여 비원리적 집단화되어 버린 것에 대해 마음 깊이 아픔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2017 년 12 월 2 일, 현진 님이 「가정평화협회 (FPA)」라는 조직을 출범시켜 「FPA 는 창교자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을 통해 실현하고자 했던 바를 목표로 삼고 있다」(『통일교의 분열』 314 페이지)라고 태연하게 말하는 등, 조직을 분열시키는 활동을 더욱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내막을 근거로 생각하면, 모든 일들의 진상은 『통일교의 분열』이 논하고 있는 「참아버님 음모론」 때문에 현진 님이 쫓아냈던 것이 아니라, 현진 님이 참아버님의 말씀과 엇갈린 주장을 하고, 아버님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다른 행동을 계속 취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과 같은 상황을 초래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통일교의 분열』의 가장 큰 문제점은 “천지인참부모 정착완료” 선포를 완전 무시하는 것

참아버님은 2010 년 6 월 19 일과 동년 6 월 26 일, 미국·라스베이거스에서 「최종일체」를 선언하시고, 그 후 세계 순회를 하시면서 「천지인참부모 정착 실체말씀 선포 천주대회」를 거행하셨습니다. 그리고 2012 년 연두표어 「천지인참부모 승리해방 완성시대」를 발표하시고, 동년 3 월에는 일본에서 「천지인참부모님 승리해방 완성시대 선포대회」를 개최하신 그 위에 제 53 회 「참부모의 날」에 「『천지인참부모정착』.....그것만 이루어지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동년 4 월 14 일 미국 천화궁에서 「천지인참부모 정착 실체말씀 선포 천주대회를 최종완성, 완결」이라고 선포하시고, 그 7 일 후의 4 월 21 일, 한국 청심평화월드센터에서 「천지인참부모님 특별집회」를 개최하셨습니다. 그 대회에서 참아버님은 「천지인참부모 정착완료」라는 강연문을

발표하시고, 「영광의 보물 자리에 앉을 사람은, 역천만대에서 단 하나의 부부(문선명·한학자 양위분)이며.....만왕의 왕은 한 분입니다」고 명확히 발표하셨습니다. 이것은 「참부모」의 완전 승리의 선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통일교의 분열』에서는 “한학자는 아버님의 혈통을 의심하고 있으며, 아버님에 대해 “불순종”이었다. 아버님은 그것에 대해서 고심하고 있었다는 것이 진상이다”라고 하며, 참아버님과 참어머님은 일체화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통일교의 분열』의 내용은 이 모든 것들의 일련(一連)의 참아버님 자신의 인식을 완전히 무시해서 논하고 있는 “허위 스토리”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통일교의 분열』이라는 서적은 역사적인 독신(瀆神)의 저서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히 이 서적의 총론적인 “한학자의 불순종”(245페이지)이라는 항목에서는 이미 논한 바와 같이 참어머님의 불순종을 어떻게 해서든 입증하려고 해서, 참아버님의 말씀을 18 개나 인용하고 있습니다만, 말씀선집의 원전(原典) 속에서 그것들을 검증해보니까, 모든 말씀이 개찬된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에 남는 최악의 서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이 『통일교의 분열』을 보급시키고 있는 UCI 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참어머님에 대한 믿음이 붕괴된 사람들이고, 참아버님에 대한 믿음 또한 마찬가지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버님을 진심으로 믿고, 존경하고, 모시는 마음이 가득한 사람이라면, 이렇게 태연하게 “말씀 개찬”이나 “오역” 등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거짓 서적 『통일교의 분열』에게 부디 속지 않게끔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문책 : 교리연구원

본서에서는 참부모님의 말씀이나 『원리강론』에서 인용한 부분 및 교리연구원이 이미 발표한 주장은 「푸른 글자」로 표기하고, UCI, 생츠퍼리교회 및 반대파의 주장은 「갈색의 글자」로 구별합니다.

목차

- 머리말 / 2
8. 「독생자·독생녀」 비판에 관한 참어머님의 공식 견해 / 10
9. 축복가정을 “양자 양녀”라고 하는 잘못
(보충) 말씀 은폐에 입각한 UCI 측의 주장 / 10
10. 하나님의 혈통에 관한 잘못된 이해 / 12
(1)말씀의 잘못된 해석에 기인하는 「씨의 상속」에 관한 주장 / 12
(2)중생은 「하나님의 혈통의 씨를 가진 남성의 자녀님에게 연결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잘못
남서만이 아니라 여성도 「씨」를 가지고 있다 / 13
11. UCI가 주장하는 “중생론”의 근본적인 잘못 / 16
12. 「축복 권한의 이양」에 대한 왜곡된 말씀 해석
참부모님의 “허락”을 받지 않는 「축복식」은 무효이다 / 19
13. 참어머님 앞에 제일 가까운 아들·딸이 「제3 교주」 / 21
14. 「부자협조시대, 어머니는 필요없다」라고 주장하는 잘못 / 23
(1)출전 문헌(出典文獻)에 관한 은폐(隱蔽)와 망سم 개찬(改竄) 행위 / 23
(2)말씀을 누덕누덕 덧붙여서 의미를 개찬하는 악의적 인용 / 23
(3)악의(惡意)가 있는 “말씀 삭제” 및 “말씀 개찬” / 24
(4)부자협조시대란 「어머니가 필요 없는 시대」인가? / 26
15. 「현진 님을 지지하는 유지(有志)의 회(會)」의 반론의 문제점 · 1 / 27
(1)하나님의 창조목적의 중심은 「참부모」이다 / 27
(2)UCI 측의 언설(言說)은 가정의 개념에 「부부」의 존재가 결여된다 / 32
16. 「현진 님을 지지하는 유지(有志)의 회(會)」의 반론의 문제점 · 2 / 35
(1)참아버님을 「미완(未完)의 메시아」로 알보는 해석 / 35
(2)「선생님 일대」를 「부모와 자녀를 포함한 아담 가정 일대」라고 해석하는 잘못 / 37
17. 사쿠라이 마사우에 씨에 의한 서한의 “잘못된 섭리관” / 38
아버님의 “후계의 질서”에 대한 “올바른 섭리관”
- 아버님의 별세 후에는 「어머님이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 38
18. 참어머님이 「현진 님을 추방했다」는 허위 주장 / 42
천일국 최고위원회는 「법통(法統)」이라고 거짓 주장 / 46
19. 독생녀의 말씀은 진리이다 · 1 / 49
(1)「참어머님을 지상세계에서 찾아낸다」라고 하는 말씀을 갖고 「참어머님의 무원죄 탄생」을 부정하려고 하는 잘못 / 49
(2)비원리집단(非原理集團) 측의 악의(惡意)가 있는 말씀의 “오역(誤譯)” / 50
(3)참어머님이 말씀하신 말씀은 「원죄없이 태어난 독생자, 독생녀」이다 / 50
(4)「참어머님의 무원죄 탄생」의 부정이야말로 “비원리적” / 51
20. 독생녀의 말씀은 진리이다 · 2 / 55
(1)기독교의 역사는 “독생녀”를 찾기 위한 역사 / 55
(2)인간시조 「영적 타락만 있을 때의 구원섭리」에 대하여 / 57
(3)어머님은 「하나님을 뿌리로 ……나타난 주인공」 / 61

8. 「독생자·독생녀」 비판에 관한 참어머님의 공식 견해

천일국 5 년 천력 3 월 16 일 (2017 년 양력 4 월 12 일) 「천지인 참부모님 성혼 57 주년 기념식」이 한국 천주청평수련원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그 기념식에서 참어머님께서 문선명·한학자 총재 양위분의 「성혼기념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날은 모든 만남을 극복하고……. 원죄없이 태어난 독생자 독생녀가 하늘의 뜻을 받들어 어린양 잔치를 하는 날! 하늘에는 영광이요, 인류 앞에는 기쁨이요, 소망이요, 희망이었습니다」 (Peace TV 참부모님 성혼 57 주년 기념식)

이와 같이 참어머님 자신이 공식석상에서 전세계 식구를 향해서, 성혼 기념일이란 「원죄없이 태어난 독생자 독생녀가 하늘의 뜻을 받들어 어린양 잔치를 하는 날」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원죄없이 태어난 독생자」란 문선명 총재를, 「원죄없이 태어난……독생녀」란 한학자 총재를 말씀하신 것이 명확합니다. 참어머님께서 참아버님도 참어머님도 함께 원죄없이 태어나서 「어린양의 잔치」를 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참어머님이 공식석상에서 말씀하시는 「독생자·독생녀」는 「원죄없이 태어난 독생자 독생녀」를 의미합니다.

또 참어머님께서 2017 년 10 월 25 일, 한국 천정궁에서 개최된 원로목회자 특별집회에서 「내가 1943 년에 태어났어……이복은 공산화가 돼. 내가 거기에서 살아남을 수 없어……하늘은 나를 보호해야 돼. 그러니까 나를 남하하게 했어……아버님은 독생자가 틀림없어」(중화신문, 2017 년 11 월 10 일호) 라고 말씀하셨고, 참아버님이 독생자로서 어머님과 만났던 것을 명언하고 계십니다.

9. 축복가정을 “양자 양녀”라고 하는 잘못

(보충) 말씀 은폐에 입각한 UCI 측의 주장

UCI 측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제멋대로 해석하여, 잘못된 「중생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UCI 가 축복가정을 축복가정을 “양자 양녀”라고 하는 잘못에 대해 지적했더니, 그들은 다음과 같이 반론해 왔습니다.

「(교리연구원)은 중생의 원리에 있어서 참자녀님의 위치의 중요성을 속이고 있습니다. 물론 중생이란 다시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를 통해서 중생됩니다. 그러나 원래는 친자식이 아닌 축복가정이 어떻게 하여 부모님의 친자식의 위치로 돌아가는가 하면, 친자식인 참자녀님과 일체가 되는 것으로써 참어머님의 태중(胎中), 더 나아가 참아버님의 골수 속의 씨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그 씨는 남성의 자녀님에게 상속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말하면, 교리연구원은 상기의

설명에 있어서 참어머니의 태중(胎中)이라는 말은 하고 있지만 어찌 된 것인지 참아버님의 골수 속의 씨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주, 한국어 번역, 굵은 글씨, 권점(圈點)은 교리연구원에 의함)

「사쿠라이 세쓰코 선생님이 현진 님을 『직접적인 오라버님』으로 소중하게 느끼는 것은 참부모님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의 혈통의 씨를 가진 남성의 자녀님에게 연결되는 것을 통하여 참부모님께 의해서 중생되는 원리를 충실하게 실천하는 것입니다」

UCI 측의 주장의 최대 문제점은 축복가정을 「친자식이 아닌 축복가정」으로 정의하고 있는 점에 있습니다. 그들은 그 근거로 다음 말씀을 인용합니다.

「양자인 이들이 주의 참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의 참자녀에게 접붙임을 받아야 됩니다. 그들은 주의 자녀들을 사랑함으로써, 그들을 통하여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선집 52-124, 1971년 12월 26일)

이 말씀에 의하면 「양자인 이들이 주의 참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의 참자녀에게 접붙임을 받아야 됩니다」라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 축복가정을 「친자식이 아닌 축복가정」이고 「양자인 이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참아버님이 이 말씀하셨던 「양자인 이들」이란 「축복가정」을 가리키는가, 아난가에 대해서 원전(原典)과 대조하여 확인해야 됩니다.

이하, 그들이 인용을 안 했던 말씀의 전후의 부분도 포함해서 보겠습니다.

「주님(메시아)에게는 아담가정에 있어서의 세 천사장과 타락한 세 아들과 같은 자리에 있는 세 아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자리에 섰던 사람들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었습니다. 그들은 직접적인 혈통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양자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양자인 이들이 주의 참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의 참자녀에게 접붙임을 받아야 됩니다. 그들은 주의 자녀들을 사랑함으로써, 그들을 통하여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 결혼을 하였더라면, 이 세 아들도 결혼을 했을 것입니다」 (말씀선집 52-124, 1971년 12월 26일)

이와 같이 전후의 부분을 포함해서 읽고 보면, 「양자인 이들」이란 그들이 주장하는 「축복가정」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신약시대의 구원 레벨의 “양자”의 입장에 있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즉 예수님의 “3 제자”(3 천사장)를 가리키고 말씀하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기의 말씀을 쓰고 축복가정은 「친자식이 아닌 축복가정」이고, 양자 양녀의 입장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UCI 측의 주장은 일부러 말씀을 은폐한 잘못된 주장입니다.

10. 하나님의 혈통에 관한 잘못된 이해

(1)말씀의 잘못된 해석에 기인하는 「씨의 상속」에 관한 주장

UCI 측이 참가정을 “참자녀님 가정”이라고 하는 잘못에 대해서는 이미 지적했습니다만 (주, 소책자 『UCI 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언설의 잘못 No.1』 40~41 페이지 참조), 그러한 이론에 기인하여 김종석(金鍾奭)저 『통일교의 분열』은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현진은 앞에서 언급한 바대로 ‘하나님 →참부모 →참가정 →확대된 참가정(축복가정)’으로 이어지는 혈통복귀의 가치를 고수하며, 초종교적인 봉사와 이상가정 실현을 위한 평화이상세계 실현운동을 ‘One Family Under God’의 이름으로 전개하고 있다. 그런데 문현진도 참가정 (창교자의 직계가정)의 혈통이 전 인류에게 전수되는 (어떤) 의례로서의 수단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인지 2015 년 8 월, 미국 씨에틀에서 축복결혼식을 주관했다고 한다. 추측건대 그는 창교자가 지금까지 보여주었던 혈통복귀를 위한 전통이나 의례를 보편적이고 세계화된 의례로 다시 디자인하여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66 페이지. 주, 굵은 글씨는 교리연구원에 의함, 이하, 동일)

이와 같이 현진 님은 참부모님의 허락을 받지 않고 2015 년 8 월(일본어판은 「6 월」)에 미국 씨에틀에서 「축복결혼식」을 주관했다고 하고, 「참가정 안에 참사랑, 참생명, 참혈통을 실체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77 페이지) 라고 주장하며, 그 직계 가정인 “참가정(문현진 가정)” 이야 말로 참사랑과 참생명과 참혈통을 실체화한 가정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혈통」은 「하나님 →참아버님(창교자) →참가정(문현진 가정) →통일교 참가정 →인류」 (315 페이지)로 이어진다고 주장합니다. 이 주장에 대해 교리연구원은 이미 그 잘못을 다음과 같이 지적해 왔습니다.

이와 같은 주장은 「축복」이 참부모님에게 “접붙임”(중생)을 받는 것으로 구원되는 것이 아니라, 「참가정=직계가정」인 자녀님에게 “접붙임”을 받는 것으로 타락인간의 혈통복귀가 이루어지고, 인류가 구원되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아버님의 말씀과 다른, 완전히 “잘못된 언설(言說)”입니다.

참부모님의 허락도 받지 않는 채 「2015 년 8 월, 미국 씨에틀에서 축복결혼식」 (66 페이지) 를 거행했던 행동을 보면, 그들은 이상과 같이 잘못된 “참가정의 정체성”의 인식을 근거로 하고 행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리연구원의 지적에 대해서 UCI 측의 인물은 다음과 같이 반론하고

있습니다.

「그 씨 (참아버님의 골수 속의 씨)는 **남성의 자녀님에게 상속되고** 있습니다」

「아버님은 직계 장자, 장손에게 축복의 권한을 상속하고, 아버님의 성화 후에는 장자, 장손이 참부모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 나가는 것을 의도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현재, 아버님이 축복의 권한을 상속해주신 『아들』이란 누구예요?」

「사쿠라이 세쓰코 선생님이 현진 님을 『직접적인 오라버님』으로 소중하게 느끼는 것은 참부모님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실체 하나님의 혈통의 씨를 가진 남성의 자녀님에게 연결되는 것을** 통하여 참부모님에 의해서 중생되는 원리를 충실하게 실천하시는 것입니다」 (주, 굵은 글씨, 권점은 교리연구원에 의함)

그러나 이하에 서술할 것처럼 UCI 측을 지지하는 인물의 상기의 주장은 참아버님의 말씀을 잘못되게 해석한 것입니다.

(2)중생은 「하나님의 혈통의 씨를 가진 남성의 자녀님에게 연결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잘못

남서만이 아니라 여성도 「씨」를 가지고 있다

UCI 측은 「실체 하나님의 혈통의 씨를 가진 남성의 자녀님에게 연결되는 것을 통해서 참부모님에 의해서 중생되는」 것으로 하여, 또한 「그 씨 (참아버님의 골수 속의 씨)는 남성의 자녀님에게 상속되고 있습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그 근거로 이하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왜 남자가 주체냐? 아기씨라는 것이 여자에게 있어요, 남자에게 있어요? 『남자요.』 여자는 발이에요, 발. 여자에게는 생명의 씨가 없다구요. 남자는 하나님과 같이 씨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대신이기 때문에 주체라고요, 주체. 이제부터 남자들은 그걸 알아야 돼요. 왜 남자가 주체냐고 물어보게 될 때, 남자들은 ‘남자란 이렇기 때문에 주체다.’고 주장해야 된다고요」 (말씀선집 54 권, 1972 년 3 월 24 일)

이 말씀 중에서, 참아버님은 「아기씨라는 것이 여자에게 있어요」라고 물어보시고, 「여자는 발이에요」라고 말씀하시고, 「여자에게는 생명의 씨가 없다구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참아버님은 「아기씨」가 여성들에게 없다고 생각하신 것으로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말씀 전체의 문맥으로부터 헤아려 볼 때 “씨”에 대한 이해가 아닌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아버님은 「왜 남자가 주체냐?」고 물어보시면, 그것은 「하나님 대신」이고, 「남자는 하나님과 **같이** 씨를 가졌기」 때문에 「남자가 주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주셔도 더 줄 수 있는 참사랑을 갖고 계시는 “주체”의 존재입니다. 남성은 그러한 「하나님과 같이 씨」를 가지고 있으며, 주는 쪽의 입장에 있는 것이고, 여성은 그 「씨」를 받는 쪽 (받의 역할)의 입장에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버님은 이 말씀에서 「왜 남자가 주체냐고 물어보게 될 때, 남자들은 ‘남자란 이렇기 때문에 주체다.’고 주장해야 된다고요」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아버님이 이 것을 말씀하신 “의도”를 헤아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말씀은 왜 남성이 주체이고, 왜 여성이 대상인지를, 이해하기 쉽게 가르쳐서 인도하시기 위해서 참아버님이 예를 들어서 남성과 여성이 각각 「씨」(주는 쪽=주체)와 「밭」(받는 쪽=대상)의 관계에 있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반면, 참아버님은 아기 「씨」란 남성(아버지)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성(어머니)도 가지고 있다고 다음처럼 명확히 말씀하십니다.

「애기의 씨는 어머니의 뱃속에 있습니다. 아버지에게도 있지요? 아버지에게는 뱃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뱃속을 통하고 어머니의 뱃속을 통해 가지고 애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애기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만들어집니다」(『축복가정과 이상천국(I)』, 511 페이지. 주, 굵은 글씨, 권점은 교리연구원에 의함)

이 말씀에서 참아버님은 「애기의 씨는 어머니의 뱃속에 있습니다」라고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과는 달리, 씨는 「아버지에게도 있지요?」라고 말씀하시고, 「아버지에게는 뱃속」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어머니가 갖는 「애기의 씨」란 난자를 말하고, 아버지가 갖는 「애기의 씨」란 정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참아버님은 애기가 「아버지의 뱃속을 통하고 어머니의 뱃속을 통해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고, 그러므로 「애기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라고 말하면, 그것은 「아버지(정자)와 어머니(난자)를 통해서 만들어집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참아버님을 비판하는 많은 사람들은 남성만이 「하나님의 혈통」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서 「혈통」의 개념을 바르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참아버님은 남성과 여성의 양성(兩性)의 “생명”(정자와 난자)이 관계되고 혈통이 생기는 것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을 봤습니까? 생명을 만져 봤어요? 생명체는 보이지만 생명은 모릅니다. 만져 볼 수 없습니다. 혈통도 그렇습니다. 혈통은 부부가 사랑하는 그 밀실, 안방에서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자와 난자가 만나 생명체로서 결합할 때 혈통이 연결되는 것입니다」(『패밀리』 1995년 3월호, 22 페이지)

「여러분이 부모로부터 이어받은 생명은 아버지의 정자와 어머니의 난자를

이어받은 곳에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이 난자와 정자가 하나 된 곳에, 사랑으로 뿌리가 생겨서 발생한 것이 여러분의 자녀입니다」 (『패밀리』 2007 년 3 월호, 7 페이지)

참아버님은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생명의 연결, 즉 「혈통」에 대해서, 이것은 사랑을 중심으로 정자와 난자가 하나가 되는 것으로부터 출발했다고 생리학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정자와 난자의 생리학적 차원의 지적만이 아니라 더 깊이 고찰하시고, 「사랑으로 뿌리가 생겨서 발생한」이라고 “사랑”을 강조하셨습니다.

또 참아버님은 「평화 메시지」에서 「생명과 사랑이 합해서 창조해내는 것이 혈통입니다」 (『평화신경』 17 페이지), 「핏줄은 부모가 자녀에게만 줄 수 있는 특권 중의 특권입니다」 (동, 28 페이지) 라고 말씀하시지만, 혈통은 남녀에 의한 양성(兩性)의 「생명」 없이 생기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즉 「생명이 없어도, 사랑이 없어도 혈통은 창조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 생명, 혈통 중 그 열매가 혈통이란 말입니다」 (동, 17 페이지)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참아버님은 여성도 혈통을 갖고 있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

「누구나 어머니 자궁에 붙어서 어머니의 피살을 빨아먹고 컸지요? ……어머니의 피살이 필요하고 어머니의 사랑이 필요하고 어머니의 생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알겠어요? 『예.』 어머니 사랑 때문에 어머니 생명 때문에 어머니 혈통 때문에 -자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패밀리』 1999 년 11 월호, 30 페이지, 말씀선집 303-299)

이와 같이 참아버님은 「어머니 혈통 때문에 -자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태어났다」 고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 여성도 혈통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

우리는 혈통의 「씨」는 남성만 갖고 있다고 생각했던 과거의 “남존여비(男尊女卑)적인 사상에서부터 빨리 탈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난자」가 발견되지 않은 옛 시대에는 정자를 갖는 남성만이 「씨」를 가지고 있고, 그 씨만으로 자녀를 배는 것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19 세기가 되어서 「난자」가 발견되었던 것입니다. 로마 교황청립대학교의 카아리·E·버레센 교수는 이 난자의 발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카아르·에른스터·리타아·훔·베에아(Karl Ernst von Baer)에 의한 포유류의 난자의 발견 (1827 년) 에 의해, 남성중심주의적으로 여성을 이해하려고 하는 기독교론의 전제는 무너진다. 여기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기능이 동등한 것으로 보(게 된다)」 (『마리아는 누구였는가』 신교출판사(新敎出版社), 122 페이지)

이처럼 「난자의 발견」은 여성들의 복권(復權)에도, 또 신학계에도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참아버님은 「정자와 난자가 만나 생명체로서 결합할 때 혈통이 연결되는 것입니다」라고 명확히 말씀하셨고, 혈통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정자와 난자」의 양쪽을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양성(兩性)의 본질적 평등」이라는 원리적인 신학 사상을 볼 수 있습니다.

참아버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자와 난자라는 두 개의 「씨」가 합쳐져야만이 새로운 생명체가 생기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써 혈통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혈통은 아버지 혼자 있어도, 어머니 혼자 있어도 생길 수 없습니다.

따라서 UCI 측을 지지하는 인물이 주장하는 「씨 (참아버님의 골수 속의 씨) 는 남성의 자녀님에게 상속」 된다고 하는 해석은 지극히 치우친 견해이고, 비과학적인 진론 (珍論, 색다르고 재미있는 논의)에 불과합니다. 남성의 참자녀님만이 아니라, 여성의 참자녀님에게도 참아버님과 참어머님의 혈통이나 유전자는 상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중생은 「참부모」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UCI 측의 잘못된 혈통 인식을 근거로 한 “중생론”에게 속지 않게 충분히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소책자 『생츄어리고회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언설의 잘못 No.1』 17 페이지에서 논한 「핏줄은 부모가 자식에게만 줄 수 있는 특권 중의 특권입니다」 (『평화신경』 28 페이지) 라고 아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혈통이란 어디까지나 「아버지」와 「어머니」가 전수해주는 것이고, 「자녀」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즉 「혈통전환」(중생)이나 「혈통의 전수」라는 “특권”을 갖고 있는 분은 참부모님만이고, 결코 자녀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11. UCI 가 주장하는 “중생론”의 근본적인 잘못

UCI 를 지지하는 인물이 정의(定義)하는 「중생론」은 근본적인 잘못이 있습니다. 그들은 양자 양녀의 입장인 「친자식이 아닌 축복가정」이 「부모님의 친자식」의 위치로 가기 위해서는 참부모의 「친자식인 참자녀님」과 일체가 되는 것으로써 「참어머님의 태중(胎中)」과 「참아버님의 골수 속의 씨」와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중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친자식인 참자녀님」과 일체가 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언설(言說)은 참부모에 의한 중생이라고 말하기 보다는 “참자녀에 의한 중생”이라고 말한 잘못된 주장입니다.

그들은 그 근거로서 『방한(訪韓)수련회 말씀집』의 「참부모와 중생」의 말씀에서 이하의 부분을 인용합니다.

「여기에 들어올 때는 왼쪽부터 들어오는 거예요. 알겠어요? 왜 왼쪽부터 들어오느냐 하면 어머님이 왼쪽이기 때문이에요. 들어와서 어머님의 뱃속에 들어왔다고 해도, 그 들어왔던 자녀와 어머님의 뿌리는 무엇이나 하면, 뚝은감의 뿌리에서부터 찢아서 되찾은 거예요. 알겠어요? 그것이 하늘 가정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절차를 밟지 않으면 안 돼요. 무슨 절차냐고 하면 사랑의 절차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여머님의 뱃속에 들어 있다고 해도, 그것은 참여머님의 참사랑과 참혈통에는 아직 연결되지 않는 거예요. 어머니는 참사랑과 참혈통을 갖고 있지 않아요. 맞은편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신부의 입장에서 신랑을 맞이하여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네.)

전세계가 여기에 들어와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참부모의 부부관계로 말미암아 뱃 자녀, 그 자를, 참여머님의 참사랑을 중심하고 참자녀의 씨를 갖은 아버님이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을 실감한 후에 태어났던 것과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기간을 통과하면서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온 자녀들이 참여머님의 자녀의 씨가 새빨갳다고 하면, 사랑의 관계를 되풀이하는 것으로 색깔이 물들어 가면서 핑크에서부터 점점 진해지는 거예요. 핑크부터라도 그랬더라면, 참부모의 사랑과 참자녀의 씨와 접붙였다고 하는, 연결됐다고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쪽은 진짜이고, 이쪽은 가짜이고, (아버님이 시늉하심) 형님과 동생하고 마찬가지로요. 알겠어요? 그런 식으로 하나가 된 상황을 가지고, 그것은 쪽 이것을 들고, **어머니의 뱃속을 통해서, 선생님의 몸을 통해서, 다시 어머니의 배를 통해서 가는 거예요. 오른쪽을 통해서예요**」 (『방한(訪韓)수련회 말씀집』 185~186 페이지, 주, 굵은 글씨, 권점은 교리연구원에 의함. 이하 동일함)

참여머님은 참부모님에 의한 중생이란 「**어머니의 뱃속을 통해서, 선생님의 몸을 통해서, 다시 어머니의 배를 통해서 가는 거예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UCI 측이 주장하는 것처럼 「**친자식인 참자녀님**」과 일체가 되는 것으로써 「**참여머님의 태중(胎中)**」과 「**참여머님의 골수 속의 씨**」와 하나가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중생이란 참부모에게 접붙이는 것입니다. 사실, 6500 쌍 이후의 축복은 참자녀가 「참여머님」의 태중에 잉태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축복에서도 중생은 이루어졌습니다.

참여머님은 「참부모의 부부관계로 말미암아 뱃 자녀, 그 자를, 참여머님의 참사랑을 중심하고 참자녀의 씨를 갖은 아버님이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을 실감한 후에 태어났던 것과 같이 되는 거예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디까지나 중생은 「참부모의 부부관계」에 의하여 「**어머니의 배를 통해서 가는**」 태중에 있어서의 “혈통전환”이며, 그들이 말하고 있는 「**친자식이 아닌 축복가정**」이 「**친자식인 참자녀님**」과 일체가 되는 것으로써 참여머님의 태중을 통하고 가는 “중생”이 아닙니다.

그런데 「**형님과 동생하고 마찬가지로요**」라는 것은 그 말씀의 뒷부분을 읽으면 이해되는 것이고, 「**남땀질**」으로서 **아버님과 축복을 받는 남성**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고, 자녀님과 축복을 받는 남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축복가정을 「**친자식이 아닌 축복가정**」이라고 하며 「**양자 양녀**」의 입장이라고 정의하지만 이것이야 말로 「중생론」을 혼란시키는 요인이 있습니다. 이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상기의 말씀에서 인용되지 않는 뒷부분을 이하에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뱃속을 통해서, 선생님의 몸을 통해서, 다시 어머니의 배를 통해서 가는 거예요. 오른쪽을 통해서예요. 국가적 어머니의 배, 종적적 메시아의 어머니, 가족적 메시아, 복귀된 160의 가족 메시아의 기대에 가서 다시 낳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사탄의 혈통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별개의 천적 본래의 참부모로부터 출발한 자녀의 입장에 서는 것이기 때문에 천상, 지상천국에 어머니와 참부모님께 의하여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동, 186 페이지)

참아버님은 여기서 「다시 낳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사탄의 혈통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이라고 말씀하시며, 「참부모로부터 출발한 자녀의 입장에 서」기 때문에 「천상, 지상천국에 어머니와 참부모님께 의하여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보게 될 때 축복가정들은 「친자식이 아닌 축복가정」이라는 관점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참부모로부터 출발한 자녀」의 입장이며, 참부모에 의하여 중생된 축복가정들은 하나님의 혈통에 전환된 “친자식의 입장”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아 UCI 측이 주장하는, 축복가정들을 「친자식이 아닌 축복가정」으로 파악(把握)하고 「양자 양녀」의 입장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전술한 말씀에서 「그것은 참아버님의 참사랑과 참혈통에는 아직 연결되지 않는 거예요. 어머니는 참사랑과 참혈통을 갖고 있지 않아요」라는 한 부분만을 빼내고 「어머니는 타락인간의 혈통이다」라고 비판하는 인물도 있습니다. 이전에도 지적한 것처럼 그들은 「혈통」의 개념을 잘못 파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참아버님이 「혈통은 부부가 사랑하는 그 밀실, 그 안방에서 맺어지는 거예요. ……정자하고 난자가 만나 생명체로 결합할 때, 혈통이 연결될 때」 (말씀선집 266 - 322)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혈통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둘이서 연결되는 것입니다. 혈통의 연결은 아버지 혼자서도 어머니 혼자서도 생기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해를 근거로 하여 오해를 사지 않도록 보충하면 「어머니는 (혼자서는) 참사랑과 참혈통을 갖고 있지 않아요」라는 것이지, 「어머니는 타락인간의 혈통이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원리강론』 「중생론」에서 「타락한 자녀들을 ……다시 낳아 주시기 위하여는 참아버지와 함께 참어머니도 계셔야 하는 것이다」 (234 페이지) 라는 것처럼 혈통의 연결이나 중생에는 참아버지와 참어머니 두 분이 불가결인 것입니다. 만약 「어머니는 타락인간의 혈통이다」라고 하면 아버지 혼자서 어머니를 다시 낳다고 하는 것입니까? UCI 측의 언설(言說)은 중생론과 모순된 비원리적(非原理的)인 것입니다.

12. 「축복 권한의 이양」에 대한 왜곡된 말씀 해석

참부모님의 “허락”을 받지 않는 「축복식」은 무효이다

UCI 를 지지하는 인물은 다음과 같이 교리연구원의 견해를 비판합니다.

「아버님은 직계 장자, 장손에게 축복의 권한을 상속하시고, 아버님의 성화 이후에는 장자, 장손이 참부모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고 나아갈 것을 의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아버님이 축복의 권한을 상속해 주었던 『아들』이란 누구입니까?」

「사쿠라이 세쓰코 선생님이 현진 님을 『직접적인 오라버님』으로 소중하게 느끼는 것」

이와 같이 UCI 측의 인물은 「아버님이 축복의 권한을 상속해 주었던 『아들』」이란 「현진 님」이라고 말합니다. 그 근거로서 이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평면 자리에, 아버지 앞에 아들을 끌어내 세워서 축복하든, 아버지가 천상세계 영계의 아들에게 가서 축복하든 마찬가지로 통일된 축복가정의 의미를 세우기 위해서 아버지가 아들 앞에 축복 권한을 상속해 준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8 대 교재 교본『천성경』 1395 페이지)

「이 축복을 하늘땅의 평면 기준에서 동등한 가치를 전수하니만큼, 부모님이 하던 모든 일을 장남 되는 홍진군이 할 수 있고 홍진군이 하니만큼 동생 된 현진군도 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된다는 것입니다」(2000 년 9 월 24 일의 축복이양 선포식. 주, 이것은 『주요 의식과 선포식 IV』 370 페이지에서 인용함)

상기의 두 개의 말씀을 근거로 UCI 측의 인물은 현진 님에게 「아버님이 축복의 권한을 상속해 주었(다)」고 논합니다.

UCI 측이 근거로 하는 이 두 개의 말씀은 2000 년 9 월 24 일, 천주청평수련원에서 거행된 「축복이양 선포식」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발췌한 말씀을 읽으면 「아버지가 아들 앞에 축복 권한을 상속해 준다」라고 말씀하시고, 「장남 되는 홍진군이 할 수 있고 홍진군이 하니만큼 동생 된 현진군도 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된다」, 그러므로 2000 년 9 월 24 일의 「축복이양 선포식」에서 「아버님이 축복의 권한을 상속해 주었던 『아들』」이란 「현진 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입니다.

그들이 인용한 말씀 부분만 가지고는 “축복의 권한”에 관해서 바르게 이해하기에 불충분합니다. 이것을 바르게 이해하기에는 「축복이양 선포식」이 무엇이었던가? 참아버님이 「축복의 권한」을 누구에게 이양하셨는가를 말씀으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의식과 선포식 IV』(성화출판사)에 그 말씀이 수록되고 있습니다. UCI 측을

지지하는 인물은 이 말씀집의 370 페이지 (일본어판은 480 페이지) 에서 어떤 한 부분만을 인용했기 때문에 그들이 인용하지 않았던 부분을 포함해서 이하, 인용합니다.

「2000 년 9 월 24 일 오전 11 시 30 분, 한국 천주청평수련원에 있는 천성완림궁전에서 제 1 차 3 시대 대전환 사위기대 입적 통일 축복식에 참석하기 위해 수련 중이던 4 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천상의 홍진님께 참부모님의 축복권을 이양하는** 축복이양 선포식을 거행하셨다」 (363 페이지, 서문)

「앞으로 축복은 지상에 있어서 선생님이 안 해줘도 괜찮아요. 아버지가 안 해줘도 괜찮아요. 형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늙어 죽거나 그러면 형님들이 축복해 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축복을 차후에 장자권 자리에 있는 **홍진군이 축복을 지상에서도 할 수 있고 영계에서도 할 수 있다**는 거라구요.

아버님도 지상에서도 축복해 줄 수 있고 영계에서 해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동등한 가치를 일체화시키기 위해 지상의 아버지가 **영계의 아들 앞에 전수식을 해주는** 것입니다. **영계에 있는 아들이** 아버지의 집에 마음대로 갈 수 있고 지상의 참부모도 아버지의 집에 마음대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

부모님이 부모님 자리를 완성한 것은 아들의 자리의 완성도 되는 것예요. 영계에 가나 지상에 가나 마찬가지로 가치적 내용을 전수, 일체화시키는 놀음을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영계의 장자 되는 홍진군**을 불러 가지고 이와 같이 축복받은 가정들을 세워 같이 통일적 선언을 함으로 말미암아, 선생님이 축복 안 해주고 **앞으로 홍진군이 축복하는데….** **홍진군이 없게 된다면** 현진군이 아버지 대신 축복을 해 줄 수 있는 시대에 들어간다구요」 (365~366 페이지)

「선생님이 전수식 축복을 해줘야 돼요. 선생님이 하던 권한, 또 **홍진군이** 하던 권한, 동생이 할 수 있는 권한도 전부 다 **홍진군을 통해서**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참부모의 허락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368 페이지)

「축복이양 선포식」이란 『주요 의식과 선포식 IV』의 서문에 있는 것처럼 어디까지나 「**천상의 홍진님께 참부모님의 축복권을 이양**」된 선포식입니다.

참아버님은 「**아버지가 늙어 죽거나 그러면 형님들이** 축복해 줄 수 있는」 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지, 현진 님에게 “축복권을 이양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으며, 오히려 「**형님들**」이라고 복수형(複數形)으로 말씀하신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더 위에 「**앞으로 홍진군이 축복하는데….** **홍진군이 없게 된다면** 현진군이 아버지 대신 축복을 해 줄 수 있는」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홍진군이 없게 된다면**」 그때 「**현진군이……**」 라고 말씀하셨고, 현진 님에 대한 축복권 이양에 대해서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고, 게다가 “조건부(條件附)”로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현진 님에 대해서 이미 「축복권이 이양되었다」고 생각해서 주장하는 것은 망신(妄信)이나 지레짐작(斟酌)이며, 올바른 말씀 이해가 아닙니다.

또한 「선생님이 하던 권한, 또 **홍진군이** 하던 권한, 동생이 할 수 있는 권한도

전부 다 **홍진군을 통해서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참부모의 허락을 받음**으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현진 님에 대한 축복권 이양은 어디까지나 「**홍진군을 통해서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참부모의 허락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 대전제(大前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참부모의 허락을 받음**」이라는 절차를 하지 않는 채, 현진 님이 「**2015 년 8 월, 미국 씨에틀에서 축복결혼식을 주관했다**」(김종석(金鍾奭)저 『통일교의 분열』 66 페이지)라는 축복은 「**동생 (현진 님)이 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고, 잘못된 것이며, 무효(無效)입니다.

참아버님이 평화 메시지에서 「**하늘의 참된 혈통을 갖고 오신 참부모님을 통해 결혼축복을 받는 것이 바로 참감람나무에 접붙임을 하는 은사입니다. ……참된 가정을 찾아 세울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평화신경』 22~29 페이지)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참부모님의 “허락”을 받지 않는 축복식은 의미가 없는 의식이고, “무효”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13. 참어머님 앞에 제일 가까운 아들·딸이 「제 3 교주」

참아버님은 이후에 있어서의 상속자로서의 “후계”의 질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이 영계에 가게 되면 어머니가 책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아들딸이에요. 아들이 해야 된다고요. 아들이 없으면 딸이 해야 된다 이거예요. 후계자가 누구냐 하는 것은 벌써 전통적으로 다 (준비가) 돼 있어요**」(말씀선집 318-260)

「**내(주, 아버님)가 없더라도 어머니 앞에 제일 가까운 아들딸이 제 3의 교주가 되는 것입니다**」(말씀선집 202-83~84)

이상의 참아버님의 말씀을 읽으면 이미 후계에 관한 “질서”를 명확히 말씀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선생님이 영계에 가게 되면 어머니가 책임하는**」 것이고, 그 다음은 「**아들딸**」이라는 것입니다. 주목해야 할 것은 「**아들이 없으면 딸이 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점입니다. 이와 같이 아버님은 상속자로서의 “후계”의 질서를 확실히 논하고 있습니다.

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시대에 있어서 가인·아벨의 문제에 대해서도 참아버님은 그 원칙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시대)는 본연의 어머니가 장자권 복귀, 부모권 복귀를 해서 어머니 복귀권에 들어갔기 때문에 어머니를 중심삼고 볼 때 장자와 차자는 어머니 이름 아래 절대복종해야 된다 이거예요. 복종하게 되는 것은 아버지와 연결돼요**」(『주요 의식과 선포식 III』 120 페이지)

이와 같이 자녀인 가인·아벨은 「참어머니」를 통해서 「참아버지」에게 연결되어야 합니다.

이 원칙은 축복가정에게도 적용되는 것이고, 참아버님은 「어머니 중심삼고 가인(축복가정)과 아벨(참자녀)이 하나되어야 합니다. 어머니와 하나되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선생님과 하나되는 거예요. 영계도 그렇고 땅도 그렇습니다. 선생님하고 하나님하고 말이예요」(말씀선집 265-310~311)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진 님의 경우, 「참어머니」를 통해서 「참아버지」에게 연결되는 원칙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참아버님은 그 활동을 받아들이고 축복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참부모님 곁을 떠나기 전의 칠남 형진 님의 경우는 자기의 활동을 참어머니에게 보고하고 「참어머니」를 통해서 「참아버지」에게 연결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님은 그 활동을 축복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참어머니는 상속자인 “후계”의 문제의 후보로서 참아버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그때는 남자의 자녀님 중에서 어머니 앞에 제일 가까운 관계에 있었던 형진 님을 생각하고 계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후 형진 님이 어머니와의 관계에 있어서 어려워졌기 때문에 어머니는 아버님의 말씀에 따라 이번에는 여성의 자녀님 중에서 어머니 앞에 제일 가까운 5 녀의 선진 님을 세계회장으로 세우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술한 말씀대로, 참부모님의 성화 이후의 상속자에 대해서는 「어머니 앞에 제일 가까운 아들딸이 제 3의 교주가 되는 것입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자녀님 중에서 「제 3의 교주」로 상속자를 택하는 권한은 어디까지나 참어머니에게 있는 것이고, 그것은 참아버님의 말씀대로 어머니 앞에 제일 가까운 자녀님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게 될 때 참부모님의 「축복 권한의 이양」의 문제에 관해서도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참부모의 허락을 받」는 입장에 있어서 현시점에서는 문선진 세계회장님이 서 계시는 것이고, 참부모님의 애기의 씨를 가지고 계시는 여성의 참자녀님으로서 앞으로 참부모님의 대신으로 축복식의 주례를 행할 수 있는 입장에 있는 것이 참아버님이 말씀하신 기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참부모의 허락을 받」는 것을 안 하는 “무허가(無許可)”의 축복식은 비록 참자녀님을 의한 것이라 해도 모두 다 무효(無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참아버님, 참어머니와의 관계 없이 제멋대로 「나야 말로 제 2대 왕이다」 「나야 말로 섭리적 장자다」라고 주장하더라도, 그 언행은 아버님이 하신 「내가 없더라도 어머니 앞에 제일 가까운 아들딸이 제 3의 교주가 되는 것입니다」라는 말씀으로 보면 모두 다 잘못된 일이라는 것이 명확합니다. 어디까지나 「제 3의 교주」란 어머니와의 관계성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14. 「부자협조시대, 어머니는 필요없다」라고 주장하는 잘못

(1)출전 문헌(出典文獻)에 관한 은폐(隱蔽)와 망썸 개찬(改竄) 행위

김종석 씨는 그의 저서 『통일교의 분열』에서 「2000 년 11 월에는 “모자협조시대가 끝나고 부자협조시대가 도래하였으므로 어머니가 필요 없고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70 페이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이고 완전한 사랑의 씨를 가정적으로 받아 가지고 아버지와 아들이 직계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어머니가 필요 없어요. 모자협조시대와 부자협조시대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절대사랑의 위해서 하나님은 여자를 품고 나왔는데 거기에 상대적 입장에 서려면 절대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이 어머니에 대한 말이에요. 모자협조시대를 박차고 부자협조시대로 넘어가기 때문에 어머니는 여기에 협조를 안 해도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해 나감으로 말미암아 탕감하기 위해 수고한 모든 시대의 축복을 하늘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선집』 456 권, 465 쪽. 2000.11.11 / 『통일교의 분열』 70 페이지의 주석(註釋))

먼저 이 출전 표기는 엉터리입니다. 『문선명 선생 말씀선집』 456 권에 「465 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456 권은 316 페이지밖에 없습니다.

실은 2000 년 11 월 11 일의 말씀은 『주요 의식과 선포식 IV』 (성화출판사)에 「부자협조시대 선언」이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으며 그것을 『통일교의 분열』에 인용하고 있습니다.

『주요 의식과 선포식 IV』 한국어판에서는 456~465 페이지, 일본어판에서는 593~605 페이지입니다. 이 말씀은 13 페이지, 196 행에 달하는 내용입니다 (일본어판).

이처럼 김종석 씨는 「부자협조시대가 도래하였으므로 어머니가 필요 없(다)」고 참아버님이 말씀하셨다고 하고 그 근거의 말씀을 「『말씀선집』 456 권, 465 쪽」에서 인용했다고 기재(記載)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주요 의식과 선포식 IV』이고, 출전 표기를 속이고 있습니다.

말씀의 출전 표기에 가공의 가재가 있으면 안 됩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통일교의 분열』이 참아버님을 알보는 것을 목적으로 쓰고 있는 것이고, 독자들을 속이는 책이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증거의 하나입니다.

(2)말씀을 누덕누덕 덧붙여서 의미를 개찬하는 악의적 인용

김종석 씨는 “말씀의 출전”을 속였을 뿐만 아니라, 그가 「부자협조시대가 도래하였으므로 어머니가 필요 없(다)」고 참아버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는 말씀은

원전과 비교하면 지독하게 누덕누덕 덧붙였고, 게다가 의미를 개찬한 사실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김종석 씨가 “말씀의 출전”을 속였던 것은 지독하게 누덕누덕 덧붙였던 사실, 말씀의 의미를 개찬하고 있는 사실을 독자들에게 들키지 않게 하기 위한 “은폐 공작”이 아닐까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1)출전 문헌(出典文獻)에 관한 은폐(隱蔽)와 말씀 개찬(改竄) 행위」에서 인용한 『통일교의 분열』에서 나온 말씀의 원전을 확인해 보면 이 말씀은 한 단락으로 구성된 것이 아닙니다. 전후의 문장을 많이 생략하고, 누덕누덕 덧붙여서 조작된 말씀입니다. 『주요 의식과 선포식 IV』에서 생략 부분을 보기 위해서 이하에 표기합니다.

「(서두에서 89 행을 생략)…… 그러니까 직접적이고 완전한 사랑의 씨를 가정적으로 받아 가지고 아버지와 아들이 직계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어머니가 필요 없어요. ……(56 행을 생략)…… 모자협조시대와 부자협조시대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9 행을 생략)…… 절대사랑의 위해서 하나님이 여자를 품고 나왔는데 거기에 상대적 입장에 서려면 절대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이 어머니에 대한 말이에요. ……(2 행을 생략)…… 모자협조시대를 박차고 부자협조시대로 넘어가기 때문에 어머니는 여기에 협조를 안 해도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해 나감으로 말미암아 탕감하기 위해 수고한 모든 시대의 축복을 하늘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마지막까지 34 행을 생략)」 (주, 이 문장은 『통일교의 분열』에서 인용함)

이처럼 김종석 씨가 「부자협조시대가 도래하였으므로 어머니가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근거로서 인용한 말씀은 전후의 문장을 많이 생략하고 지독하게 누덕누덕 덧붙여서 개찬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 위에 말씀의 의미도 원전과 비교하면 개찬된 것이 명확합니다.

결국, 김종석 씨가 지독하게 누덕누덕 덧붙인 목적은 참아버님이 「2000 년 11 월에는 “모자협조시대가 끝나고 부자협조시대가 도래하였으므로 어머니가 필요 없고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라고 하는 것으로써 “참아버님이 필요 없는 시대에 들어왔다”고 주장하고 싶기 때문에, 그 주지에 맞게 “개찬”한 것입니다.

(3)악의(惡意)가 있는 “말씀 삭제” 및 “말씀 개찬”

다음은 김종석 씨가 인용한 말씀 삭제와 말씀 개찬에 관한 “문제”에 대해 확인하도록 합니다. 이하, 『통일교의 분열』의 문장과 『주요 의식과 선포식 IV』의 문장을 비교해 봅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이고 완전한 사랑의 씨를 가정적으로 받아 가지고 아버지와 아들이 직계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어머니가 필요 없어요」 (『통일교의 분열』 일본어판, 70 페이지)

「그러니까 직접적이고 완전한 사랑의 씨를 가정적으로 받아 가지고 아버지와 아들이 직계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여기는 어머니(母親=모친)가 필요 없어요」 (『주요 의식과 선포식 IV』 일본어판, 599 페이지)

『주요 의식과 선포식 IV』 일본어판, 599 페이지에는 「여기는 어머니(母親=모친)가 필요 없어요」 라고 써져 있지만 이 말씀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그 전후를 이해해야 합니다. 『통일교의 분열』이 생략, 은폐한 조금 전의 부분에 중요한 말씀이 숨기고 있습니다. 『주요 의식과 선포식 IV』 일본어판, 598~599 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이 되고 있습니다.

「모자섭리시대가 아니고 부자섭리시대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나오기 전까지 어머니(母親=모친)들이 아들을 길러 나오면서 핍박을 받고 나왔지만 이제 하나님을 중심삼고, 직접적 참부모님 중심삼고 아들딸이 태어났기 때문에 어머니(母親=모친)가 없어도 돼요. 어머니 시대는 지나가고 부자섭리시대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중심삼고 참아버지가 나오고 참아버지 중심삼고 참어머니가 나와 가지고 거기에서 태어난 아들딸들은 사탄이 손댈 수 없는 것을 알아야 돼요」

참아버님은 여기서 「어머니(母親=모친)」 이라는 말과 「참어머니」 라는 말을 명확히 구별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님은 「부모님이 나오기 전까지 어머니(母親=모친)들이 아들을 길러 나오면서 핍박을 받고 나왔(다)」라고 복수형(複數形)으로 말씀하셨고, 여기서 「어머니(母親=모친)가 없어도 돼요」란 「참어머니」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사실, 「어머니 시대는 지나가고 부자섭리시대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신 직후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중심삼고 참아버지가 나오고 참아버지 중심삼고 참어머니가 나와 가지고……」라고 말씀하시고, “어머니(母親=모친)들”을 대신해서 “참어머니”가 나오셨던 것을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母親=모친)가 없어도 돼요」란 “참어머니”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다음은 일본어 번역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절대사랑에 의하여 하나님이 여자를 품고 나왔는데, 거기에 상대적 입장에 서려면 절대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이 어머니에 대한 말이에요」 (『통일교의 분열』 일본어판, 70 페이지)

「절대사랑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자를 품고 나왔는데, 거기에 상대적 입장에

서려면 절대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이 어머니에 대한 말이에요」 (『주요 의식과 선포식 IV』 일본어판, 603 페이지)

『주요 의식과 선포식 IV』 일본어판은 「절대사랑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자를 품고 나왔(다)」 라고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일교의 분열』 일본어판에서는 「절대사랑에 의하여 하나님이 여자를 품고 나왔(다)」 라고 번역되고 있습니다. 「절대사랑을 위해서」 하고 「절대사랑에 의하여」 는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2)말씀을 누덕누덕 덧붙여서 의미를 개찬하는 악의적 인용」에서 취급했던 『통일교의 분열』이 누덕누덕 덧붙여서 개찬하는 말씀을 읽으면 김종석 씨의 의도가 알게 됩니다.

즉, 개찬된 말씀의 「어머니」의 부분을 「한학자」로 옮겨 놓고 읽고 보면 그의 의도가 알게 됩니다. 『통일교의 분열』이 말하고 싶은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직계로 연결되는 (부자협조시대)」 이기 때문에 이미 「여기에는 어머니 (한학자) 가 필요 없어요」. 모자협조시대 때는 「절대사랑에 의하여 하나님이 여자 (한학자) 를 품고 나왔는데 거기에 상대적 입장에 서려면 (한학자가) 절대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이 어머니 (한학자) 에 대한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부자협조시대가 되었으므로 「모자협조시대를 박차고 부자협조시대로 넘어가기 때문에 어머니 (한학자) 는 여기에 협조를 안 해도 (아버지와 아들이)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해 나감으로 말미암아 탕감하기 위해 수고한 모든 시대의 축복을 하늘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읽게 하고 싶기 때문에 일본어 번역을 바꾸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주요 의식과 선포식 IV』 일본어판의 「절대사랑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자를 품고 나왔(다)」 라는 문장에서는 이러한 의미가 약해짐으로서 참어머님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을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4)부자협조시대란 「어머니가 필요 없는 시대」 인가?

『주요 의식과 선포식 IV』 일본어판에 게재된 「부자협조시대 선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주요한 부분을 이하, 인용합니다.

「선생님을 중심삼은 자녀들이 태어났기 때문에 아버지하고 아들, 부자섭리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모자섭리시대가 아니고 부자섭리시대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나오기 전까지 어머니(母親=모친)들이 아들을 길러 나오면서 핍박을 받고 나왔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중심삼고, 직접적 참부모님 중심삼고 아들딸이 태어났기 때문에 어머니(母親=모친)가 없어도 돼요. 어머니 시대는 지나가고 부자섭리시대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중심삼고 참아버지가 나오고 참아버지

중심삼고 **참어머니가 나와 가치고** 거기에서 태어난 아들딸들은 사탄이 손댈 수 없는 것을 알아야 돼요」 (598~599 페이지)

「탕감이라는 것이 없어진 거예요. 모자협조시대가 완전히 없어지고 하나님과 참아버지와 참아들의 핏줄이 연결될 수 있는 해방권의 최정상의 자리에 선 거예요」 (599 페이지)

「부자협조시대에 생명의 씨를 품고 키우려고 하는 여자들은 남편에 대해서 절대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자들이 지금까지 **본연의 남편**을 찾아 나오는 데 수천 년, 수만 년 희생하던 그 수난의 역사를 넘어서서 **본연의 남편**을 맞을 수 있는 자리에 서면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의 도리를 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602 페이지)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모자협조시대란 「**부모님이 나오기 전까지**」의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 시대까지는 「**어머니(母親=모친)**들이 아들을 길러 나오면서 **핍박**」을 받고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협조시대는 「**참부모님 중심삼고 아들딸이 태어났**」던 것을 시작으로, 참부모가 나올 때까지의 핍박을 받고 나왔던 「**어머니(母親=모친)**가 **없어도**」 되고, 「**어머니 시대**」는 지나가고 「**모자협조시대가 완전히 없어**」진 시대인 것입니다.

또 부자협조시대란 「**하나님과 참아버지와 참아들의 핏줄이 연결**」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협조시대의 여성들은 「**본연의 남편**」에게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의 도리**」를 다 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부자협조시대란 「**어머니가 필요 없는**」 시대, 즉 「**참어머니는 필요 없는 시대**」가 아니라 모자협조시대와 같은 「**모친은 필요 없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부자협조시대에 의하여 「**참부모님 중심삼고 아들딸**」이 태어났습니다. 부자협조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중심삼고 참아버지가 나오고 참아버지 중심삼고 참어머니가 나**」오는 것이며, 따라서 “참어머니”는 **절대로 필요한 시대**가 된 것입니다.

15. 「현진 님을 지지하는 유지(有志)의 회(會)」의 반론의 문제점 · 1

교리연구원이 지적한 「사쿠라이 세쓰코 씨에 의한 『신앙고백』의 영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현진 님을 지지하는 유지(有志)의 회(會)」가 「교리연구원에 대한 공개 질문 및 사쿠라이 부인에 관한 공문에 대한 반론」을 발표했습니다. 이하, 그 반론의 내용에 있는 그들의 언설(言說)의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1)하나님의 창조목적의 중심은 「참부모」이다

①UCI 측의 「삼위일체」에 관한 불정확한 이해

UCI 측의 문제점은 「실체적인 삼위일체」에 관해서 “잘못된 관점”에서 말씀을 해석하여 「참가정」을 정의하는 데에 있습니다. 그들은 반론 속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가정연합에서는 『삼위일체』라는 말을 가져와서 참부모님의 가치만을 크게 강조하지만 『삼위일체』의 목적은 실체의 사위기대를 완성시키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가정연합에서는 참자녀님의 가치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와 같이 UCI 측의 「삼위일체」의 목적은 「실체의 사위기대를 완성시키는 것」이라고 말하고, 가정연합은 「참부모님의 가치만을 크게 강조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그러나 이 비판은 「삼위일체」의 불정확한 이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원리강론』에서는 「삼위일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성신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일체가 되는 것이니, 이것이 곧 삼위일체(三位一體)이다」 (237 페이지)

「예수님과 성신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영적인 삼위일체를 이루므로써 영적 참부모의 사명만을 하시었다」 (237 페이지)

「그러므로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실체적인 삼위일체를 이루어 영육(靈肉) 아우른 참부모가 되심으로써, 타락인간을 영육 아울러 중생케 하시어 그들로 하여금 원죄를 청산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실체적인 삼위일체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재림하시게 되는 것이다」 (237 페이지)

『원리강론』은 영적 삼위일체에 대해서 「예수님과 성신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일체가 되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즉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과 성신의 일체를 영적 삼위일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 삼위일체는 「영적 참부모의 사명」을 이루는 것만으로 끝났기 때문에 「타락인간을 영육 아울러 중생케 하시」기 위해서는 「실체적인 삼위일체」인 영육 아우른 「참부모」가 재림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체적인 삼위일체」란 예수님의 재림으로 오시는 「참된 아담」과 성신의 실체인 「참된 해와」(참어머니)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일체를 이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상과 같이 『원리강론』이 정의하는 「실체적인 삼위일체」는 참자녀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습니다.

② 「중생론」과 밀접하게 관계되는 「삼위일체론」

참자녀님의 가치를 『원리강론』의 「삼위일체론」에서 보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해와를 창조하신 목적은, 그들을 인류의 참부모로 세워 ……하나님을 중심한 사위기대를 이루시어 삼위일체가 되게 하시려는 데 있었던 것이다. 만일 그들이 타락되지 않고 완성되어 하나님을 중심으로 참부모로서의 삼위일체를 이루어서 선의 자녀를 번식하였더라면, 그의 후손들도 역시 하나님을 중심한 선의 부부를 이루어 각각 삼위일체가 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3 대 축복(三大祝福) 완성에 의한 지상천국은 그 때에 이미 이루어졌을 것이었다」
(237 페이지)

『원리강론』은 「하나님은 아담과 해와를 창조하신 목적은, 그들을 인류의 참부모로 세워 ……하나님을 중심한 사위기대를 이루시어 삼위일체가 되게 하시려는 데 있었던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 경우는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참부모로서의 삼위일체」를 이루어서, 「선의 자녀」를 번식하였더라면, 그의 「후손들도……하나님을 중심한 선의 부부」를 이루어 「각각 삼위일체가 되었을 것」이라고 논하고 있습니다. 이 삼위일체론을 근거로하여 참자녀님의 가치를 원리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중심한 선의 부부를 이루어 각각 삼위일체」가 되는 존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실체적인 삼위일체」란 「인류의 참부모」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것에 따라 「각각 삼위일체」는 참자녀님 가정 및 축복가정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참부모로서의 삼위일체를 이루어서 선의 자녀를 번식하였더라면……」라는 것처럼 아담과 해와는 삼위일체를 이룬 위에서 자녀를 번식해야 합니다. UCI 측이 말하는 「『삼위일체』의 목적은 실체의 사위기대를 완성시키는 것이 아닙니까?」라는 내용도 삼위일체를 이룬 위에서, 거기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자녀를 번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을 중심으로 실체적인 삼위일체를 이룬 위에서 자녀를 번식해야 합니다. 「실체적인 삼위일체」란 전향에서 논한 것과 같이 참된 아담과 참된 해와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일체를 이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토대로 한 위에서 『원리강론』은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들(아담과 해와)이 타락되지 않고 완성되어 하나님을 중심으로 참부모로서의 삼위일체를 이루어서 선의 자녀를 번식하였더라면, 그의 후손들도……하나님을 중심한 선의 부부를 이루어 ……지상천국은 ……이루어졌을 것이었다. 그러나 아담과 해와가 타락하여 사탄을 중심으로 사위기대를 이루었기 때문에, 사탄을 중심으로 삼위일체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후손들도……사탄을 중심으로 삼위일체를 형성하여 타락한 인간사회를 이루어 놓은 것이다」
(237 페이지)

이 부분은 지극히 중요합니다. 인간 조상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위일체”를 이룰 것이냐, 아니면 사탄을 중심으로 “삼위일체”를 이룰 것이냐의 따라, 천국이 될지, 지옥이 될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즉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위일체”를 이루면 유전의 법칙에 따라 거기서 태어난 후손들은 “하나님의 혈통”이 되고, 반대로 사탄을 중심으로 “삼위일체”를 이루면 유전의 법칙에 따라 그 후손들은 “사탄의 혈통”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천국이 될지, 지옥이 될지의 분기점은 인간 조상 아담과 해와의 “삼위일체”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담과 해와는 특별한 사명을 갖고 있는 인물이었던 것이고, 그들이 어떤 입장에서 “삼위일체”를 이룰 것이냐에 따라 뜻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UCI 측이 말하는 「최근의 가정연합에서는 『삼위일체』라는 말을 가져와서 참부모님의 가치만을 크게 강조하지만 『삼위일체』의 목적은 실체의 사위기대를 완성시키는 것이 아닙니까?」라는 주장은 삼위일체에 대한 표층적(表層的)인 이해에 불과하고, 인간 조상이 「실체적인 삼위일체」를 이루어 인류의 참부모가 될 것의 충대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원리강론』은 타락인간에 대한 「중생」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성신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영적인 삼위일체를 이루므로써 영적 참부모의 사명만을 하시었다. 따라서 ……성도들도 ……영적 자녀의 입장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실체적인 삼위일체를 이루어 영육(靈肉) 아우른 참부모가 되므로써, 타락인간을 영육 아울러 중생케 하시어 그들로 하여금 원죄를 청산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실체적인 삼위일체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재림하시게 되는 것이다」 (237 페이지)

참부모님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실체적인 삼위일체」를 이루어 「영육(靈肉) 아우른 참부모」가 되는 것으로 「타락인간을 영육 아울러 중생케 하시어 ……하나님을 중심으로 실체적인 삼위일체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재림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중생론」과 「삼위일체론」은 밀접하게 관련되는 것이고, 양자는 따로 논할 필요도 없는 내용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원리강론』이 논하는 “삼위일체의 목적”은 UCI 측이 말하는 단순히 「실체의 사위기대를 완성시키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③ 창조목적의 중심은 「참부모」이다

인간 조상 아담과 해와가 완성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실체적인 삼위일체」를 이루어 그 위에서 그들이 자녀를 번식하여 가정적인 사위기대를 이루어야 합니다. 참아버님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계십니다.

「본인이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정의를 내려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이란 ‘창조이상을 완성하는 것’ 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통일교회의 말을 빌려서 말한다면, 하나님의 뜻은 사위기대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통일교회에서 보는 하나님의 뜻, 곧 레버런 문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이 우주를 만든 창조이상, 즉 창조목적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만물을 창조할 때 반드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창조목적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목적의 중심이 누구냐? 아담 해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창조의 이상을 실현하는 것, 곧 **아담과 해와를 중심삼은 이상을 실현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목적**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상실현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사위기대를 이루는 것입니다. 사위기대는 하나님을 중심삼고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의 사랑권에서 벗어나려야 벗어날 수 없도록 완전히 하나로 일치되어 **이상적인 부부를 이루고**, 그들이 자녀를 번식함으로써 이루어지는 하나님을 중심한 가정의 기대를 말합니다. 이 사위기대가 조성되면, 하나님을 중심삼고 아담과 해와가 **부부의 사랑으로 일체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권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됩니다」 (『축복가정과 이상천국 (I)』, 298 ~299 페이지)

주목해야 할 점은 참아버님이 「**그 목적의 중심이 누구냐?**」 라고 물어보시고, 「**아담 해와였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아담과 해와란 참부모님을 말합니다. 아버님이 「**하나님을 중심삼고 아담과 해와가 부부의 사랑으로 일체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권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됩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중심으로 먼저 “부부”가 완전일체(실체적인 삼위일체)가 되어 합니다.

당연히 참아버님이 「**하나님의 뜻은 사위기대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위기대가 중요한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위기대를 이루기 위해서는 「**실체적인 삼위일체**」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위기대 완성에 있어서 자녀는 참부부, 참부모인 **승리하신 아담과 해와의 소원을 완전히 이어받을 수 있어야** 그 가치를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의 소원을 이어받을 수 없다면 하나님의 원하시는 사위기대의 완성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또 『원리강론』은 인간 조상 아담과 해와가 “부부”로서 완성한 위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완성되었다라면 그는 피조물의 모든 존재가 갖추고 있는 주체들을 총합한 실체상이 되고, 해와가 완성되었다라면 그는 또 피조물의 모든 존재가 갖추고 있는 대상들을 총합한실체상이 되었으리라는 결론을 바로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들이 **부부를 이루어** 일체가 되었다라면, 그것이 바로 주체와 대상으로 구성되어 있는 **온**

피조세계를 주관하는 중심체였을 것이다. ……아담과 해와가 완성된 부부로서 일체를 이룬 그 자리가 바로 사랑의 주체이신 하나님의 미의 대상인 인간이 일체화하여 창조목적의 완전한 선의 중심이 되는 자리이다. 여기에서 비로소 부모되신 하나님은 자녀로 완성된 인간에게 임재하시어 영원히 안식하시게 된다. ……여기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가 바로 진리의 중심이 되어 ……인간으로 하여금 창조목적의 지향하도록 이끌어 주는 본심의 중심도 되는 것이다」 (41 페이지)

이상과 같이 『원리강론』은 완성한 아담과 해와 (부부) 의 위치는 「온 피조세계를 주관하는 중심체」 「창조목적의 완전한 선의 중심」 「(하나님이) 영원히 안식하시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진다)」 「진리의 중심」 「본심의 중심」 등으로 논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실제적인 삼위일체를 완성한 아담과 해와 (부부)의 위치는 너무 강조해도 강조할 수 없을 정도로 극히 “중요한 위치”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UCI 측이 말하는 「최근의 가정연합에서는 『삼위일체』라는 말을 가져와서 참부모님의 가치만을 크게 강조」 한다라는 비판은 「참부모」라는 개념이 가지고 있는 의의와 가치를 모른 채 비판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2)UCI 측의 언설(言說)은 가정의 개념에 「부부」의 존재가 결여된다

①가정이란 「자녀가 있어야지 부모」인가?

UCI 측이 주장하는 “가정”의 개념에는 「부부」라는 것이 없습니다. 먼저 문제가 되는 그들의 반론에 있어서의 “가정의 정의”의 부분을 인용합니다.

「가정이라는 것은 부모가 있어야지 자녀라고 할 수 있고, 자녀가 있어야지 부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아버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절대성을 중심삼은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의 뜻대로 개인완성 ……을 이루어 하나님의 축복 속에 부부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완전일체를 이루었다라면, 하나님께서 그들속에 임재하실 수 있는 인연이 결정되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들의 자녀에게도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부자의 인연을 맺을 수 있는 사랑의 기준이 연결되었을 것입니다」 (『평화신경』 172 페이지)

원래 아담과 해와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부부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완전일체」를 이루었다라면, 선의 자녀를 번식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것으로

보더라도 UCI 측이 주장하는 「**부모가 있어야지 자녀 ……자녀가 있어야지 부모**」라는 가정의 정의는 “부부”의 중요성을 결여시킨 것이고, 정확한 표현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물론 자녀가 존재함으로서 부모가 될 수는 있고, 부모가 존재함으로서 자녀의 입장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녀가 탄생한 결과로서의 가정을 정의하고, 설명한 것에 불과합니다. 자녀가 탄생하는 출발점이나 그 과정은 어디까지나 「**부부관계**」를 맺음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담과 헤와가 결혼하여 「**하나님의 축복 속에 부부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완전일체**」를 이루는 것이 「**실체적인 삼위일체**」를 완성하는 것이고, 또 「가정적 사위기대」를 이루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가정이라고 말할 때, 삼위일체를 이룬 “부부”야말로 가정의 최소 단위입니다. 아무리 자녀가 없는 부부라 하더라도, 그 부부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된 상태는 이미 “가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실체적인 삼위일체**」란 “부부”가 일체가 되고 「가정적 사위기대」(주, 통일사상에서 말하는 「자동적(自同的) 사위기대」)를 이루어 완성하는 것이고, 자녀가 탄생하고 「**실체적인 삼위일체**」가 완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평화신경』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 속에 부부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완전일체**」를 이루는 것으로 「**실체적인 삼위일체**」는 완성하는 것입니다.

“부부”의 존재를 경시(輕視) 하는 입장에서 논하는 UCI 측의 「가정의 정의」는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② 「참가정」의 잘못된 정의

UCI 측의 「참가정」의 잘못된 정의의 부분을 좀더 인용합니다.

「**참부모만으로도 아니고, 참자녀만으로도 아니고, 참가정이 완성되지 않으면 뜻은 성취할 수 없다**라는 근본적인 원리」

「**하나님의 창조목적은 참부모가 아니라 참가정을 『모델 평화 이상가정』으로서 완성**」

UCI 측은 전술한 바와 같이, 반론분에서 「**부모가 있어야지 자녀 ……자녀가 있어야지 부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가정”의 정의에 있어서도 「**참부모만으로도 아니고, 참자녀만으로도 아니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위에 하나님의 창조목적은 「**참부모가 아니라**」라고 말하고, 부정하면서 「**참가정을 『모델 평화 이상가정』으로서 완성**」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항에서 가정의 최소 단위는 「부부」라고 지적한 것처럼, 참가정의 정의에 있어서의 최소 단위도 「부부」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에 관한 말씀을 인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한 궁극적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참사랑을 중심한 이상가정의 완성을 통해 기쁨을 느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첫번째 인간은 남성격을 대표한 모델인 아담과 여성격을 대표한 모델인 해와였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 수 있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확보하는 모델 평화이상가정이었습니다」 (『평화신경』 13~14 페이지)

「아담과 해와가 완성된 부부로서 일체를 이룬 그 자리가 바로 사랑의 주체인 하나님의 미(美)의 대상인 인간이 일체화하여 창조목적을 완성한 선의 중심이 되는 자리이다. 여기에서 비로소 부모되신 하나님은 자녀로 완성된 인간에게 임재하시어 영원히 안식하시게 된다」 (『원리강론』 41 페이지)

『평화신경』의 말씀으로 이해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목적이란 「남성격을 대표한 모델인 아담」(독생자)와 「여성격을 대표한 모델인 해와」(독생녀)가 「모델 평화이상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원리강론』도 남성격을 대표한 「아담」과 여성격을 대표한 「해와」가 「부부로서 일체」가 된 위치야 말로 「창조목적을 완성」한 「선의 중심」의 위치라고 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UCI 측은 그 반론문에 있어서 「하나님의 창조목적은 참부모가 아니라」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 주장은 이미 전향에서 논한 것처럼 「원리」를 왜곡한 잘못된 해석입니다.

참아버님은 「하나님은 모든 피조만물을 창조할 때 반드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창조목적은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목적의 중심이 누구냐? 아담 해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아버님)는 창조의 이상을 실현하는 것, 곧 아담과 해와를 중심삼은 이상을 실현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목적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축복가정과 이상천국 (I)』, 298 ~299 페이지)라고 논하고 있는 것처럼 「아담과 해와를 중심삼은 이상을 실현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목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창조목적이란 하나님의 이성성상이 실체적으로 일체가 된 「부부」에 의하여 완성해 나아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아버님이 말씀하신 「모델 평화이상가정」이란 먼저 「남성격을 대표한 모델인 아담」과 「여성격을 대표한 모델인 해와」가 부부로서 일체가 되어 가정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창조목적이란 「참가정」(가정적 사위기대)을 이루는 것인데, 그 가정이란 먼저 「참부부」를 이루는 것이고, 동시에 「참부모」도 이루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실체적인 삼위일체를 이룬 위에서 자녀를 번식해 나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참아버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가정천국은 남자와 여자가 완전히 하나되어야 이루어지고, 개인천국은 몸과 마음이 완전히 하나되어야 이루어집니다. 가정천국은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부부가 하나되어야 하고 자녀와 하나되어야 합니다. 그 뜻의 목적은 만민을 위하는 것입니다」

16. 「현진 님을 지지하는 유지(有志)의 회(會)」의 반론의 문제점 · 2

(1)참아버님을 「미완(未完)의 메시아」로 앞보는 해석

UCI 측은 참아버님이 최후의 기도에서 「다 이루었다」고 기도하신 것에 대해서 메시아의 사명을 완결하지 않았다고 해석합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습니다.

「교리연구원은 『다 이루었다』고 하는 아버님의 기도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 전문(全文)을 읽으면 아버님이 최후의 기도 속에서 『다 이루었다』고 기도하신 것은 결코 메시아의 사명 모두(창조목적완성)를 이루었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버님은 우리가 자녀님을 중심하고 종족적 메시아의 책임을 다하여, 세계 각국을 천일국화(天一國化)시켜 가는 것으로 다 끝날 것이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아버님이 기도 속에서 『다 이루었다』고 기도하신 것을 그 부분만 추출(抽出)해서 모두 다 이루었다라는 식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참아버님의 “최후의 기도” 전문(全文)을 인용합니다.

「오늘 최종적인 완성 완결을 지어서 아버지 앞에 돌려드렸사옵고, 지금까지 한 생을 아버지 앞에 바친 줄 알고 있사오니, 그 뜻대로 이제는 모든 생을 정성 들여 종료하는 시간을 맞이하여 타락이 없었던 본연의 에덴동산으로 돌아가서 해와가 잘못되고 아담이 책임분담에 걸린 것을 다 초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에 대한 해방·석방의 권한을 가지고 누구든지 부모님의 뒤만 따라오면 4 차원에서도, 14 차원에서도 지옥 갈 수 있는 것을 천국으로 입향할 수 있는 4 차원 입적과 14 명의 아들딸들을 중심삼고 종족적 메시아가 국가를 대표할 수 있는 이름을 이루어 387 개 나라 (아벨유엔권 194 개국, 가인유엔권 193 개국) 만 복귀하면 다 끝나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 일을 위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아주!」
(천일국경전 『천성경』 1646 페이지. 주, 굵은 글씨, 권점은 교리연구원에 의함, 이하 동일함)

참아버님이 「이루었다」고 기도하신 부분이 3 개 있습니다. 먼저 「오늘 최종적인 완성 완결을 지어서 아버지 앞에 돌려드렸사옵고」라고 기도하시고 「타락이 없었던 본연의 에덴동산으로 돌아가서 해와가 잘못되고 아담이 책임분담」을 초월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타락한 아담과 해와의 잘못을 탕감복귀하시고, 그 책임분담을 「완성 완결」해서 이루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음으로, 최후의 부분에서 「이루었다」고 기도하셨습니다. 그 직전에 「그 일을 위한 모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부모님의 뒤」를 따라오기만 하면 「지옥 갈 수 있는 것을 천국으로 입향」시킬 수 있고 「14 명의 아들딸들을 중심」삼고 「종족적 메시아」가 387 개 각국만 「복귀」하면, 모두가 「끝나는 것」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기도의 결말을 지으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부모로서 해야 할 책임을 다 이루셨고, 부모의 뒤만 따라오면 지옥으로 갈 수 있는 사람들도 천국으로 입향할 수 있는 「그 일을 위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아버님은

「타락이 없었던 본연의 에덴동산으로 돌아가서 ……책임분담에 걸린 것을 다 초월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부모님의 뒤만 따라오면」 모든 사람이 천국으로 입향할 수 있는 때를 맞이했던 것입니다.

이상으로 최후의 기도를 정리해 보면, 메시아의 사명은 「다 이루었다」고 이해할 수 있고, 그 승리한 참부모님을 따라 14 명의 아들딸들을 중심삼고 종족적 메시아가 아벨유엔권 194 개국, 가인유엔권 193 개국만 복귀하면 「다 끝나는」 것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참아버님이 메시아의 사명·책임인 천일국의 길, 인류가 가야 할 모형의 전부를 개척해내시고, 「다 이루었다」고 기도하신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UCI 측은 메시아의 사명을 만민 구제의 완결, 완료라는 「창조목적 전체의 완성」까지도 포함시켜서, 그것까지 이루는 것으로써 메시아의 사명이 「다 끝났다」고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아버님이 최후의 기도 속에서 『다 이루었다』고 기도하신 것은 결코 메시아의 사명 모두(창조목적완성)를 이루었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었다」고 해석하는 잘못을 범하게 된 것입니다.

『원리강론』의 예정론에서는 복귀섭리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그러했듯이 그의 재창조역사인 구원섭리도 한꺼번에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로부터 시작하여 점차 전체적인 것으로 넓혀 가는 것이다」 (219 페이지)

이처럼 참아버님의 「다 이루었다」라는 기도는 「하나로부터 시작하여 점차 전체적인 것으로 넓혀 가는」 복귀섭리에 있어서 그 “터전”을 다 승리하시고 이루어진 것, 즉 메시아로서의 사명, 책임을 완성, 완결, 완료한 것을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부모님의 뒤만 따라오면」 라는 것처럼 「점차 전체적인 것으로 넓혀 가는」 섭리이기 때문에 참부모를 따르는 것으로 승리권이 전체에게 넓혀 가는 것입니다. 참아버님이 최후의 기도에 담겨 있는 절실한 소원은 천국에 입적하기 위해서 전인류가 구원섭리의 “터전”을 닦으신 「참부모」와 하나가 되라, 참부모님이 걸어오신 길, 원하신 길을 같이 걸으라고 하는 “참부모와 일체화”,

이것이야 말로 아버님의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2) 「선생님 일대」를 「부모와 자녀를 포함한 아담 가정 일대」라고 해석하는 잘못

사쿠라이 세쓰코 씨가 공개한 「신앙 고백의 영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가정연합 측은 「아버님은 『역사를 1 대에 해결해야 됩니다. 1 대에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몇 대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가정이 1 대에 승리하지 않은 것을 역사적 총탕감하여 선생님 1 대에 정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패밀리』 2001 년 6 월호, 13 페이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라고 논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UCI 측은 다음과 같이 반론하고 있습니다.

「아버님이 『아담가정이 1 대에 승리하지 않은 것을……』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버님이 『1 대』라고 말씀하신 것은 부모와 자녀를 포함한 『아담가정 1 대』를 의미하는 것은 명확합니다. 아담이 어떻게 하면 승리한 아담이 될 것입니까? 그것은 자녀가 완성할 때입니다. 참부모가 되어 할 아담의 승리는 참자녀의 승리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부모와 자녀를 분리해서 이해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참아버님의 말씀의 원전(原典)을 확인하지 않고, 말씀을 왜곡해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1 대에 이것을 맞추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2001 년) 부터 12 년 남아 있습니다. ……1 대에 끝내야 합니다. ……92 세까지입니다. 92 세란 무엇이냐 하면 80 세부터 12 년입니다. 2012 년까지입니다. ……선생님이 있는 동안에 이것을 해야 한다」 (동, 20~21 페이지)

참아버님이 「지금부터 12 년 남아 있습니다. ……1 대에 끝내야 합니다. ……92 세까지입니다」 「선생님이 있는 동안에……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1 대에 해결한다」라는 것은 UCI 측이 주장하는 「부모와 자녀를 포함한 『아담가정 1 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님은 2001 년의 시점에서 남아 있는 「92 세까지」의 12 년간에 모든 것을 1 대에 끝나겠다고 결사적인 각오를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 결심을 실행하시고, 1 대에 이루어진 입장에서 「다 이루었다」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참아버님은 「역사를 1 대에 해결해야 됩니다」라고 말씀하시고, 최후의 기도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UCI 측이 「선생님 일대」란 「부모와 자녀를 포함한 『아담가정 1 대』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굳이 해석하는 것은, 아버님은 아직도 역사적 사명을 다하지 못하시고, 현진 님이 아버님께서 남기신 “미완(未完)의 사명”을 완수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메시아의 사명을 이어받은 인물이라는 권위(權威) 불임을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아버님 1 대에

다 이루셨다고 인정하면 자기가 나설 자리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후의 기도”에 대한 UCI 측의 제멋대로의 해석에 속으면 안 됩니다.

17. 사쿠라이 마사우에 씨에 의한 서한의 “잘못된 섭리관”

2017 년 10 월 1 일 당시 일본본부 가정교육국 부국장의 입장에 있던 사쿠라이 마사우에 씨가 「전국 목회자 여러분께」라는 제목의 서한을 발신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종착점은 “참가정” 이고……참부모의 승리권은 참자녀에게 상속되어야 합니다. 원리적으로 본다면, “아버지”의 전통을 계승할 “아들”을 세우는 것이야말로 “어머니”의 가장 본래적인 사명이며 그것을 돕는 것이 가인 자녀의 직무가 아니겠습니까?」

사쿠라이 마사우에 씨는 하나님의 섭리의 종착점은 「참가정」이며, 「“아버지”의 전통을 계승할 “아들”을 세우는 것」이 참어머니의 「가장 본래적인 사명이며 그것을 돕는 것이 가인 자녀」로서 축복가정의 「직무」라고 주장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섭리관”에 의한 것입니다. UCI 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와 동일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님의 “후계의 질서” 에 대한 “올바른 섭리관”

- 아버님의 별세 후에는 「어머님이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UCI 측이 보급시키는 『통일교의 분열』 (김종석저) 에서 “잘못된 섭리관”을 발췌합니다.

「그(주, 문현진 님) 는 1998 년 7 월 19 일, 30 세의 나이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세계 부회장이 됨으로써……이 당시 통일교의 누구도 창교자를 이을 리더로서의 문현진을 의심하지 않았다」 (59 페이지)

「한학자는 창교자 타계 직후……한학자의 모계 혈통, 문선진……의 모계 혈통에 의한 통일교 통치 구상……」 (230~231 페이지)

「문현진, 문국진, 문형진 이들은 창교자의 복귀된 혈통으로 태어난 『참가정』의 아들들이다. ……전 인류에게 접붙여질 혈통이 이들 세 아들의 핏줄에 흐르고 있는 셈이다. ……창교자의 『씨』를 지닌 세 아들이 참부모 (한학자)에 의해 종교적 가치가 부정된 ……한학자는 혈통신앙에 기초한 후계자 선택을 포기하였기 때문에……」 (239 페이지)

이러한 『통일교의 분열』의 주장은 참아버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말씀에 위배되며, “잘못된 섭리관”에 근거한 것입니다.

①상속자로서 “후계”의 선택을 「아들만」이라고 주장하는 잘못

『통일교의 분열』의 “잘못된 섭리관”을 이해하기 위해 아버님의 말씀을 인용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영계에 가게 되면 어머니가 책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아들딸이에요. 아들이 해야 된다고요. 아들이 없으면 딸이 해야 된다 이거예요. 후계자가 누구냐 하는 것은 벌써 전통적으로 다 (준비가) 돼 있어요」 (말씀선집 318-260)

「내 (주, 아버지) 가 없더라도 어머니 앞에 제일 가까운 아들딸이 제 3의 교주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선집 202-83~84)

참아버님은 아버님의 타계한 후 「어머니가 책임하는 거예요」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들딸이에요」라고 하시고, 거기에는 「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목해야 할 점은 「아들이 없으면 딸이 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통일교의 분열』은 참아버님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하고 “후계” 문제에 대하여 아들인 자녀님만 거론되어 있고 딸인 자녀님이 제거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문현진, 문국진, 문형진……전 인류에게 접붙여질 혈통이 이들 세 아들의 핏줄에 흐르고 있는 셈이다」고 주장하고 마치 다른 자녀님에게는 아버님의 혈통을 계승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말합니다. 아버님의 「혈통」은 모든 자녀님에게 계승되어 있으며, 이것은 다른 자녀님 (특히 여성 자녀님)에 대한 차별적 발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아버님의 말씀에 근거하면, 직계 자녀님 (아들·딸)은 모두 “후계”의 선택 범위에 있는 것이지만 아버님은 후계자를 「세 아들」뿐이라고 말씀을 안하셨습니다.

또 『통일교의 분열』은 문선진님을 「한학자의 모계혈통」이라고 말하지만 이는 잘못된 혈통인식입니다. 참아버님은 남·녀의 “생명”이 연결되어 「혈통」이 생기는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혈통은 부부가 사랑하는 그 밀실, 그 안방에서 맺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정자하고 난자가 만나 생명체로 결합할 때, 혈통이 연결될 때 그 정자 난자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못 봐요. 그래, 혈통을 못 봤지만 있는 줄은 안다고요」 (말씀선집 266 - 322)

「혼자 핏줄이 연결돼요? 부모님 혼자, 남자 혼자만으로는 핏줄이 연결 안 돼요. 남자와 여자가 합해 가지고 핏줄이 연결되는 거예요」 (말씀선집 342 - 273)

이처럼 혈통은 남·녀에 의한 양성의 「생명」 없이 생기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참아버님은 여성도 혈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머니 사랑 때문에 어머니 생명 때문에 어머니 혈통 때문에—자기 때문이 아닙니다.—“내〳가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말씀선집 303-299)

따라서 여성도 혈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부모로부터 태어난 모든 자녀는 부모로부터 각각의 반쪽 유전자 정보를 이어받아서 태어났던 것이고 아버지의 「혈통」은 “아들”에게만 계승되는 것이 아닙니다. 『통일교의 분열』의 주장은 아버님 말씀의 근거도 없고 자연의 이치가 아닌 비과학적인 혈통 인식을 근거한 것이고 “여성 차별”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통일교의 분열』이 주장하는 「한학자는 혈통신앙에 기초한 후계자 선택을 포기」 했다는 주장은 잘못입니다. 문선진 님은 「한학자의 모계 혈통」인 것이 아니라 참부모님 (참아버님과 참어머님)의 직계 자녀님이십니다.

참어머님은 「아들이 없으면 딸이 해야 된다 이거예요」 「어머니 앞에 제일 가까운 아들딸이 제 3의 교주가 되는 것입니다」 라는 참아버님 말씀을 충실하게 실천하고 계시는 것이지 「후계자 선택을 포기」 등을 하시지 않습니다.

②아들만 「장자」 라고 주장하는 잘못

「장자」에 관한 참아버님 말씀을 『말씀선집』에서 인용하겠습니다.

「윤박사, 통일가에 있어서 장자가 누구라구? (효진님) 효진이보다 선생님의 아들딸이야. 열두 지파 (모두) 가 장자예요」 (말씀선집 133-244)

1998년 7월 19일, 참자녀님의 3남인 문현진 님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세계 부회장으로 취임한 사건을 『통일교의 분열』에서는 「장자 상속」이라고 합니다.

참아버님은 「장자」란 「선생님의 아들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하면 모든 자녀님이 「장자」입니다. 만약 문현진 님의 세계부회장 취임이 「장자 상속」이라고 한다면 2008년 4월 18일, 7남 문형진 님이 세계회장으로 취임한 사건도 「장자 상속」이며 또한 2015년 3월 6일 5녀의 문선진 님이 세계회장으로 취임한 사건도 「장자 상속」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통일교의 분열』에서는 문현진 님만 「장자 상속」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아버님 말씀에 근거도 없는 “한 쪽에 치우친 인식”에 의한 것입니다.

즉 자기만이 장자이며 후계자라고 하는 “자의적 (恣意的) 섭리관”으로 보기 때문에 참아버님 말씀과 다른 관점의 “잘못된 섭리관”이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자는 현진 님만이 아닙니다.

③장남이신 문효진 님을 “무시” 하는 잘못

- 모든 자녀님은 「장자」이며 또한 「장자권」이다

『통일교의 분열』은 「문현진, 문국진, 문형진 이들은 창교자의 복귀된 혈통으로 태어난 ‘참가정’의 아들들이다.……전 인류에게 접붙여질 혈통이 이들 세 아들의 핏줄에 흐르고 있는 셈이다」 (239 페이지)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참부모님의 아들은 세 사람만이 아닙니다. 특히 자녀님 중 가장 중요한 입장은 장남 인 문효진 님입니다. 그 분을 의도적으로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효진 님의 혈통이 남아 있는 것을 무시하면 안됩니다.

또한 문효진 님은 1984 년 11 월 3 일 세계대학원리연구회의 세계회장으로 취임했습니다. 『통일교의 분열』에서는 그것에 관한 것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참부모님은 문효진 님을 중심으로 통일교회의 2 세들을 하나되기 위한 운동을 해 나갔습니다. 특히 1985 년 8 월 16 일 「일승일(一勝日)」이라는 중요한 의식을 거행하셨습니다. 「일승일」에서 말씀하신 중요한 부분을 인용하겠습니다.

「부모님의 아들딸들이 이제는 황적인 면에 있어서 장자권을 이루고 또 통일교회 2 세들이 차자권을 대신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장자와 차자권이 황적으로 전개되는 시대가 맞춰지지 않고는 지상천국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말씀선집 134-310)

「이러한 것을 언제 결정짓느냐? ……선생님이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효진군을 내세워 가지고 2 세들을 하나 만드는 운동을 했습니다.그러므로 효진군이 그야말로 선생님의 맏아들로서, 맏아들의 자리에서 전부 다 책임을 지고 ……**부모님과 하나된 기준을 중심삼고 창자권 차자권이** 황적으로 설정되지 않는 한 천국 현현은 불가능하다」 (말씀선집 134-310)

「40 년을 맞아서 넘어가는 이때에 있어서 선생님을 중심삼고 세계사적인 장자권을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하나님과 하나될 수 있는 장자권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창자권 출현이** 효진군을 통해서 이뤄지는 것입니다」 (말씀선집 134-312~313)

「장자는 아버지 대신 일을 책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선집 134-314)

「내가 효진이한테 물겠는데, ……이제는 아버지 대신 우리 통일가의 어떤 식구한테도 지지 않는 중심적 장자의 책임을 해야 돼」 (말씀선집 134-327)

「일승일」이란 참가정의 장남인 문효진 님을 통해 참부모님의 아들딸들이 「장자권」이며, 통일교의 2 세들이 「차자권」으로 설정되어 「천국 현현」이 되어지는 역사적인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참아버님은 효진 님에 대하여 「**중심적 장자의 책임**」을 다하도록 당부하셨습니다.

이상의 발췌한 말씀을 정리하면 「장자」란 「선생님의 아들딸」이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부모님의 아들딸들이……장자권」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효진 님에 대하여 그 「중심적 장자」의 책임을 다하도록 바라셨습니다.

그러므로 1984 년에 문효진 님이 세계대학원리연구회 세계회장으로 취임한 것은 아버님께서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효진군을 내세워 가지고……선생님의 만아들로서, 만아들의 자리에서 전부 다 책임을 지고」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장자권」의 입장에 있어서 「중심적 장자」의 책임을 다하는 것을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1998 년에 문현진 님이 가정연합 세계 부회장으로 취임한 것, 더 2008 년 문형진 님이 가정연합 세계회장으로 취임한 것, 또한 2015 년에 문선진 님이 가정연합의 세계회장으로 취임한 것도 그 모든 일들이 「부모님과 하나된 기준」의 아들·딸이라는 「장자권」의 입장에 있어서 「장자」의 책임을 다하는 것을 바라셨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문선진 님이 가정연합 세계회장으로 취임한 것에 대해 『통일교의 분열』에서는 이것을 「한학자의 모계 혈통에 의한 통일교 통치」라고 주장하거나 「한학자는 혈통신앙에 기초한 후계자 선택을 포기」했다고 비판하지만, 이것은 참아버님의 말씀에 대한 “불충(不忠)”이며, 참부모님을 부정하는 “배신행위”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UCI 측의 언행은 참부모님에 대한 모독(冒瀆) 행위이며 잘못된 섭리관에 의한 것, 말씀에 대한 “무지”에 의한 것입니다.

18. 참어머님이 「현진 님을 추방했다」는 허위 주장

UCI 측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보급시키고 있는 『통일교의 분열』에 서술되고 있는 문현진 님을 「추방했다」는 허위 스토리에 대해서, 그 허위성을 지적하겠습니다.

『통일교의 분열』 239 페이지에는 「한학자와 문형진, 문국진이 공모하여 문현진을 몰아냈고」라고 적혀 있으며, UCI 측이 주장하는 「추방극(追放劇)」이라고 “허위 스토리”가 곳곳에서 쓰여져 있습니다. 다음은 『통일교의 분열』에서 인용하겠습니다.

「창교자의 지시에 따라 수행한 문현진의 성공적인 GPF 활동이 도리어 문현진 반대 세력을 자극하고 결집시키는 촉매제가 된 사실과 GPF 활동의 절정기에 문현진이 완전히 축출당한 사실은 통일교의 분열과 비극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있다. 문현진 반대 세력이 문현진을 축출하기 위해 전개하는 드라마 같은 과정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사건은……『속초 영계 메시지 사건』이다」(107 페이지)

『통일교의 분열』에서 논하는 「속초 영계 메시지 사건」이란 2009 년 3 월 8 일에 한국의 속초시에 있는 「천정원」 훈독회에서 일어난 사건을 말합니다.

『통일교의 분열』은 그 무렵 「GPF 활동의 절정기」였다고 논하고 있지만, 당시 참아버님은 GPF 활동에 대하여 크게 우려하고 계셨습니다.

「선생님이 살아 있는데 『선생님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 안 들어야 되느냐?』 그러고 있어요. 『유 피 에프(UPF)가아니다. 지 피 에프(GPF)다!』 하는데, 지 피 에프(GPF)도 아니고 지피 에이(GPA) 여야 된다는 선생님의 말을 몰라요」 (말씀선집 609-47)

「박정해, 라스베이거스에서 유 피 에프(UPF; 천주평화연합)하고 지피 에프(GPF; 글로벌 피스 페스티벌) 중에서 어디에 책임이 있느냐고 물어볼 때 내가 욕을 했지? 욕먹던 것이 생각나? 조직이 둘이에요? 둘이 어디 있어요? 박정해! 욕먹은 걸 알아, 몰라? 김병화! 책망한 걸 알아들었나, 못 알아들었나? 말하라구! 누구의 책임이냐고 물을 수 있어요? 선생님의 책임이지!」 (말씀선집 609-121~122)

「지 피 에프(GPF)와 유 피 에프(UPF)를 선생님이 바른손과 왼손에 들고 있는데, 누구에게 책임이 있느냐 이거예요」 (말씀선집 609-131)

이 말씀을 요약하면 2009 년 당시 북미대륙회장이었던 김병화씨에게 아버님은 「조직이 둘이에요? 둘이 어디 있어요? 박정해! 욕먹은 걸 알아, 몰라? ……누구의 책임이냐고 물을 수 있어요? 선생님의 책임이지!」 「지 피 에프(GPF)와 유 피 에프(UPF)를 선생님이 바른손과 왼손에 들고 있는데」라고 말씀하시고 UPF 와 GPF 조직은 하나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두개로 되어있다, 책임은 선생님이 져야 한다고 충고하고 계십니다.

또한 「선생님이 살아 있는데 『선생님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 안 들어야 되느냐?』 그러고 있어요. 『유 피 에프(UPF)가아니다. 지 피 에프(GPF)다!』 하는데」라고 말씀하신 내용을 보아도 참아버님이 창설하신 UPF 와 문현진 님이 중심되어 하는 GPF 활동사이에 불협화음(不協和音)이 생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아버님이 「GPF 도 아니고 GPA 여야 된다는 선생님의 말을 몰라요」라고 말씀하시고, GPF 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상당히 우려하고 계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의 참아버님의 GPF 활동에 대한 평가는 『통일교의 분열』에서 주장하는 「창교자의 지시에 따라 수행한 문현진의 성공적인 GPF 활동」 이고나 「GPF 활동의 절정기」였다는 것과 정반대였으며, 오히려 아버님께서 문현진 님의 활동 방향에 대하여 크게 우려하셨던 것입니다.

『통일교의 분열』에서는 「속초 영계메시지 조작사건」으로 그들이 부르고 있는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창교자는 『영계의 실상을 배경으로 인사 조치와 혁명적 제안을 해야 한다』며 『문효진 영계 서신』과 『훈모님 영계 보고서』를 읽으라고 제촉하였다. 김효남 훈모 대신 사회를 보던 양창식이 한학자로부터 보고서를 전달받아 읽었다」 (149 페이지)

「특히, 속초 영계 메시지 사건의 경우 창교자를 완벽하게 속이기 위해……문헌진 제거의 교묘한 도구로 이용했던 것이 바로 속초 영계메시지 조작사건이었다」
(152 페이지)

원래 이 때 아버님을 중심으로 속초에서의 「집회」가 열리게 된 것은 미국에 있었던 현진 님 측이 아버님의 뜻을 반하여 「미국교회이사회」구성원의 변경을 강행하려고 했던 큰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국교회협의회 쿠데타 미수사건). 이 중대한 사실을 무시해서, 속초에서 읽은 보고서 내용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논점의 바꿔치기”와 다름없습니다. 또한 보고서에 관련된 그들의 위 주장자체도 다음에 보는 바와 같이 거짓으로 가득 찬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크게 보면 세 가지 잘못이 있습니다. 첫째는 「훈모님 영계 보고서」라는 말이고, 둘째는 「양창식이 한학자로부터 보고서를 전달받아 읽었다」라는 설명이며, 셋째는 「속초 영계메시지 조작사건」이라는 표현입니다.

먼저 「훈모님 영계 보고서」라는 것은 잘못이며, 정확하게는 「訓母님의 보고서」로 말씀선집 609 권 123 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訓母님의 보고서」를 누가 어떻게 작성된 것인지, 그 사실과 배경에 대해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2011 년 당시 북미대륙회장이었던 양창식 씨가 2011 년 11 월 20 일에 「2009 년 3 월 8 일 속초 보고서」라는 제목의 글을 쓰고 있습니다. 양창식 씨의 「보고서」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인용하겠습니다.

「2005 년에 참부모님의 명에 의해 남북미 총책임자로 임명을 받았던 문헌진님의 지도하에 있던 미국에 2008 년 7 월 29 일 문헌진님이 미국교회의 협회장으로 임명이 되면서 두 사람간의 역할과 권한에 관한 혼돈이 있어, 이를 당시 북미대륙회장인 김병화 회장이 긴급 사안으로 양창식 당시 한국회장에게 아버님께 직접 문의할 것을 요청해 왔다.

속초모임 수일 전에 주요간부들이 양위분을 모시고 메리어트호텔 중식당에서 모임이 있었던 자리에서 본인(注, 양창식)이 아버님께 미국 측의 질문을 직접 보고 드려 아버님으로부터 분명한 답을 하명 받아 메모한 것을 정리한 내용(훈모님의 보고서)이다」 (일본어 번역 12~13 페이지)

「2-3 일후에 부모님께서……메리어트 호텔 중식당에서 천명하신 내용을 재정리하라는 하명을 내(注, 양창식)가 받아 즉시 메모노트를 정리해서 보고 드린 것이다.……이 내용을 아버님께서 직접 확인하시고 공개석상(3 월 8 일)에서 발표하도록 명하신 것이다」 (13 페이지)

「3 월 8 일 아침……경배 후 아버님께서 곧바로 훈모님에게 훈모님이 손에 들고 계셨던 노란봉투를 양창식 회장에게 주어 읽도록 명령하시었다. 당시 맨 앞자리 오른쪽에 앉아 있던 본인은 훈모님께서 건네주신 봉투를 열어 훈독을 시작했다. 첫 페이지에는 전혀 처음 대하는 효진 님의 메시지가 있었다. 그리고 같은 봉투안에

참자녀들의 미션에 대한 참아버님의 지시사항(메모노트를 정리한 「보고서」)이 정리된 내용이 있었다.……본인(注,양창식)이 부모님의 명에 의해 3 월 6 일쯤 작성하여 보고 드린 내용 그대로였다. 효진 님의 메시지는……영계 메시지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두 번째 내용은 영계에서 작성한 것이 아니라 당시 협회장으로서 공적인 명을 받고 본인(注,양창식)이 작성하여 부모님께 올린 『보고서』 내용이다. 따라서 이 내용은 영계와는 전혀 관련이 없음을 밝히는 바이다」(16 페이지)

이상으로 보고 내용을 정리해 보면 참아버님이 양창식 씨에게 「읽으라」고 명하신 훈모님이 손에 들고 있던 노란 「봉투」 안에는 두 가지 보고서가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는 「**효진 님이 영계에서 보낸 서신**」과 또 하나는 양창식 회장이 작성한 「보고서」(이것을 「**훈모님의 보고서**」라고 한다)입니다. 그 봉투를 양창식 씨는 훈모님으로부터 받고 양창식 씨가 대신 읽었습니다.

「**효진 님이 영계에서 보낸 서신**」은 그 전날인 3 월 7 일의 혼독회에서 훈모님이 「제가 어제 효진 님으로부터 편지 하나 간단하게 받았는데 읽어 올려드릴까요?」라고 아버님께 물어보면 아버님은 「**그래! 그런 걸 다 (지상과) 연결해야 돼요**」(말씀선집 609-81)라고 말씀하시고 훈모님이 그 자리에서 이미 봉독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효진 님의 편지 (「**효진 님이 영계에서 보낸 서신**」)와 양창식 씨가 정리한 「훈모님의 보고서」가 같은 봉투에 들어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참아버님은 「**결정은 전부 다 모인 자리에서 영계의 실상 보고를 훈모님을 통해서 듣고 하는 거예요. 영계에 선생님의 아들이 가서 총사령관이예요. ……(효진이) 지상에서 모르고 살던 것들을 회개시키고 이래 가지고 보고한 내용들이 다 있어요. 그것을 읽어줘야 돼요**」(말씀선집 609-111~112)라고 말씀하시고 양창식 씨는 「봉투」에 들어 있었던 두 가지 내용을 그대로 혼독한 것입니다.

『통일교의 분열』에서는 「**훈모님 영계 보고서**」라고 써 있는데 말씀선집에 있듯이 그것은 양창식 씨가 쓴 「**훈모님의 보고서**」임에도 불구하고 「영계」라는 문자를 의도적으로 추가해 있습니다.

또한 양창식 씨가 쓴 「보고서」까지도 의도적으로 「영계메시지 조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문서는 이미 아버님께서 “승인(承認)”하신 내용입니다. 특히 양창식 씨가 정리한 「보고서」는 아버님이 양창식 씨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그가 정리하여 그것을 **아버님께서 직접 재확인하신 문서**이며, 누가 마음대로 「**조작**」한 문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아버님께서 양창식 씨에게 대신 기록하게 한 「지시사항」이며 아버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영계메시지」도 아니고, 「조작」된 문서도 아닙니다.

그런데 『통일교의 분열』에서는 「**양창식이 한학자로부터 보고서를 전달받아 읽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훈모님이 손에 들고 계셨던 노란 『봉투를 양창식 회장에게 주어 읽도록』」 참아버님께서 명령하시고 읽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통일교의 분열』 151 페이지에는 「김효남 (주, 훈모님)은 내막을 묻는 문현진에게 자신은 문효진 영계 서신과 무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속초 사건 전날인 2009 년 3 월 7 일에 훈모님은 아버님께 「제가 어제 효진 님으로부터 편지 하나 간단하게 받았는데 읽어 올려드릴까요?」 라고 물어보면, 아버님은 「그래! 그런 걸 다 (지상과) 연결해야 돼요.……내일 아침에 내가 거기서 혼독회와 더불어 참석할 테니까 준비하라구」 라고 말씀하시고 지시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김효남은……문효진 영계 서신과 무관」 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결국은 「문현진 제거의 교묘한 도구로 이용했던 것이 바로 속초 영계메시지 조작사건이었다」고 하는 『통일교의 분열』의 설명은 “허위 주장” 이나 다름없습니다.

따라서 2009 년 3 월 8 일의 「속초 영계메시지 조작사건」이 「한학자와 문형진, 문국진이 공모하여 문현진을 몰아냈고」, 그렇게 되어진 사건이라는 주장도 “허위 주장” 입니다. 이러한 주장은 현진 님을 “피해자”로 표현함으로써 “반역(反逆) 행위”를 정당화(正當化)시키기 위하여 쓰여진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통일교의 분열』은 참여머님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참여머님까지도 얹잡아 보았습니다. 사실을 왜곡한 “역사적 심판”을 받아야 할 책임입니다.

천일국 최고위원회는 「법통(法統)」이라고 거짓 주장

『통일교의 분열』에서는 천일국 최고위원회를 「법통」이라고 거짓 주장을 합니다. 다음을 인용하겠습니다.

「한학자는 혈통신앙에 기초한 후계자 선택을 포기하였기 때문에 소위 『법통』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합리화 해야 한다」 (239 페이지)

「참가정이 의도적으로 배제된 천일국최고위원회……」 (273 페이지)

이러한 주장은 모두 잘못된 주장입니다.

①참가정을 중심으로 한 천일국 최고위원회

UCI 측은 천일국 최고위원회가 「참부모님의 직계자녀가 아니라 능력있는 사람」이 계승하여 「법을 중심」으로 한 후계 구도를 도모(圖謀)하고 있다고 하며 「참가정이 의도적으로 배제된 천일국최고위원회」 라고 비판합니다..

그러나 『천일국 헌법』 제 3 장 「천일국 최고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제 28 조 (최고의결기관) 천일국은 최고의결기관으로 천일국최고위원회를 둔다.

제 29 조 (구성) 1.천일국 최고위원회는 13 명으로 구성한다.

제 30 조 (위원장 · 부위원장) 1. 위원장은 **참부모님 가정 중에서 참부모님이 임명하며**, 천정원(天政苑)의 세계회장직을 겸한다」

2014 년 5 월 12 일 참부모님이 주최하신 제 1 회 「천일국 최고위원회 회의」가 천정궁박물관 3 층 훈독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참어머님께서 천일국 최고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참부모님의 직계자녀님이신 5 녀 문선진 님을 임명하시고 오늘날까지 문선진 님이 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따라서 천일국 최고위원회는 「**참가정이 의도적으로 배제**」된 조직이라는 주장은 정반대의 사실입니다. 천일국 최고위원회는 **참가정을 중심삼은** 최고의결기관입니다.

②참부모님의 말씀의 구현이 바로 천일국 최고위원회

또한 UCI 측은 천일국 최고위원회는 「**자녀들 제쳐놓고 이 법을 중심삼고 최고위원회**」라고 주장하여 비판합니다. 그러나 참아버님께서 2009 년 3 월 10 일의 훈독회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5 권분립으로 새로운 세상을 만들 헌법의 조항을 다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효율이, 헌법 초안에 대해서 아나? ……2013 년 1 월 13 일 끝나자마자 그 법대로 살아야 돼요. 많은 말을 했는데, 법대로 안 되는 사람은 갈라섭니다」
(말씀선집 609-186~187)

또한 『천일국 헌법 해설법원편』 제 1 부 총론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3 권분립이 아니라 언론계와 은행계 포함하는 5 권분립 (07.7.11) 앞으로 입법부·사법부·행정부와 은행·언론계 (05.7.20)」 (89 페이지)

「천일국 최고위원회는 천일국의 최고의결기관이고(28 조), 천정원은 천일국의 행정권 (37 조), 천의원은 천일국의 입법권(47 조), 천법원은 천일국의 사법권(59 조), 천재원은 천일국의 재정권(64 조), 천공원은 민의수렴·보도·홍보에 관한 권한(69 조)을 갖는다」 (93 페이지)

「『천일국 헌법』은 참부모님의 말씀에 따라 천일국을 실체적으로 정착·완성시킬 수 있는 보편적이고 실질적인 생활체제와 국가교회체제, 그리고 세계교회체제를 갖추기 위하여 제정」 (4 페이지) 된 것이고, 「참아버님 성화 1 주기를 맞이하여 참어머님께서 『천일국 헌법』을 봉정」 (3 페이지)해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천일국최고위원회에 대하여 「**자녀들 제쳐놓고 이 법을 중심삼고 최고위원회**」라고 한 UCI 측의 비판이 잘못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천일국

최고위원회란 「참부모님을 중심으로 한 참가정이 중심인 최고의결기관」이며 「천일국 헌법을 중심으로 한 최고의결기관」입니다. 모든 것은 참부모님의 말씀에 따라 하는 것입니다.

③참부모님의 직계자녀에 의한 「계승」을 위한 천일국 최고위원회

UCI 측은 천일국최고위원회란 「참부모님의 직계자녀가 아니라 능력있는 사람이 계승」하는 「법통 계승」이라고 비판하고, 참여머님은 「『법통 계승』을 위해 장자를 추방」했다고 주장합니다. 그것은 「현진님을 몰아내는 것」이고 「섭리적 장자를 무너뜨리는 것」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학자는 혈통신앙에 기초한 후계자 선택을 포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장자」에 대한 아버님의 말씀으로 설명한 부분에서 언급했듯이 이상의 UCI 측의 비판은 아버님의 “장자”의 말씀에 대한 몰이해(沒理解), “무지”로 인한 주장에 지나지 않습니다.

천일국 최고위원회란 「참부모님의 직계자녀님」을 위한 계승이며 직계자녀님을 제외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계승하는 「법통」이 아닙니다.

참여머님은 「현진님을 추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천일국 최고위원회」를 세웠다고 하는 것은 거짓 설명이나 다름없습니다.

「앞으로 선생님 이후에 효진군의 후손, 혹은 여기에 있는 사람의 후손이 있을입니다. 후손들이 있어서 이 대를 쭉 이어내려 가는데 누가 이 대를 잇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물론 맏아들이 이어야 되겠지만, 맏아들이 모든 것에서 부족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형제들이 공의회를 열어가지고..., 만약에 형이 책임 못하면 형 자신이 자기를 직고해야 합니다. 『나는 우리 가정의 전통적인 모든 것을 세울 수 없으니우리 가정의 누가 내 대신 그것을 세워 줬으면 좋겠다』고. 이런 말이 있으면 이것을 공의회에, 가정회의에 붙여 가지고 전부 다 기도한 끝에 이것을 선정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책임을 받은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나? 보다 희생하려고 하는 사람, 보다 아벨적인 전통역사를 이어받은 사람입니다. 명령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명령을 하고 자기는 그들 앞에 복을 주기 위한 길을 가야 된다고요」 (말씀선집 134-316~317)

이 말씀에서 「누가 이 대를 잇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물론 맏아들이 이어야 되겠지만, 맏아들이 모든 것에서 부족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형제들이 공의회를 열어가지고」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참아버님은 2009년 3월 10일 혼동회에서 「2013년 1월 13일 끝나자마자 그 법대로 살아야 돼요. ……법대로 안 되는 사람은 갈라섭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문현진님은 2009년 3월 8일 이후 참부모님 곁을 떠나셨습니다. 2012년 9월 3일

참아버님 성화 직후, 현진 님은 「국내 통일교 세력과 결별해 세계 평화운동에 전념할 것」 이라고 말하며(『월간조선』 2012 년 12 월호), 2012 년 9 월 13 일에는 「자신의 길을 갈 것이라고 선언」(『통일교의 분열』 213 페이지) 했고, 2013 년 1 월 13 일 「기원절」 이후 가정연합과 완전히 결별, 2017 년 12 월 2 일에는 FPA (가정평화협회)라는 참부모님과 전혀 무관한 조직을 출범시키고 비원리 집단의 활동을 더욱 활발하게 주도하고 있습니다.

참아버님이 「2013 년 1 월 13 일 끝나자마자……법대로 안 되는 사람은 갈라섭니다」고 하신 바와 같이 문현진 님은 참부모님의 곁을 완전히 떠났습니다. 아버님은 「형제들이 공의회를 열어가지고…공의회에, 가정회의에 붙여 가지고」 라고 하신데도 지금은 참어머님, 다른 참자녀님들과 대화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참부모님은 문현진 님이 하루 빨리 본래 위치와 상태로 돌아오실 것을 간절히 바라십니다.

결론적으로는 『통일교의 분열』에서 말하는 참어머님이 「『법통계승』을 위해 장자를 추방」했다고 하는 것은 거짓 설명이며, 현진 님이 참아버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고 참부모님 곁을 떠나버렸다는 것이 진상(眞相)인 것입니다.

19. 독생녀의 말씀은 진리이다 · 1

참아버님은 「주님이 이 땅 위에서 찾으시는 신부는 ……타락하지 않은 순수한 혈통을 지니고 탄생한 분」 (『축복가정과 이상천국(I)』 669 페이지)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참어머님께서 말씀하시는 “독생녀”의 말씀이 맞다고 뒷받침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1) 「참어머님을 지상세계에서 찾아낸다」라고 하는 말씀을 갖고 「참어머님의 무원죄 탄생」을 부정하려고 하는 잘못

참아버님은 “아버님이 참어머님을 천상에서가 아니라 지상세계에서 찾아내고 재창조해야 한다” (참조, 일본어판 『하나님의 뜻과 세계』 853 페이지)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것에 대해서 UCI 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참어머님을 천상 (영계) 이 아니라 「지상세계에서 찾아내는 것」을 가지고 「참어머님의 무원죄 탄생」을 부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원리강론』의 「인류역사 종말론」에서 「인류역사의 목적은 ‘생명나무’를 중심한 에덴동산을 복귀하려는 데 있다. 그런데 에덴동산은 ……지구 전체를 의미한다」 (121 페이지) 라고 논하는 것과 같이 「에덴동산」이 “지상세계”를 의미하는 사실에 대해서입니다.

재림주의 탄생에 대해서도 「재림이 지상에서 육신을 쓰고 탄생하시는 것으로써 이루어진다」 (542 페니지) 라고 논하고 있는 것처럼 인류역사의 종말기에 있어서 메시아가 재림하신다면 이 지상세계에 「복귀된 에덴동산」이 재현되고, 메시아는 그

에덴동산(지상세계)에 있어서 해와(참어머니)를 찾아서 성혼하시는 것이므로 「지상세계에서 찾아내고 복귀」라는 말씀만을 가지고 「참어머님의 무원죄 탄생」을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2)비원리집단(非原理集團) 측의 악의(惡意)가 있는 말씀의 “오역(誤譯)”

소책자 「**생츠티어리교회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언설의 잘못 No.2**」 (20~21 페이지)에서 이미 반론한 내용이지만 아직도 반대파의 인물들이 악의(惡意)를 갖고 퍼뜨리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하겠습니다.

생츠티어리교회 측의 인물들은 「여러분은 사탄의 교회에 나가고 있습니다. 사탄의 교회! 아버님도 말씀으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참어머님은 타락한 천사장의 혈통에서 왔다』」라고 하며, 마치 참어머님께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신 것처럼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말씀의 “오역”, “은폐”에 기인된 비판인 것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원래의 말씀은 「**어머님도 타락한 천사장의 핏줄을 받은 사람이에요**」라고 번역해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역”을 하고 있고, 이어지고 있는 부분을 삭제(은폐)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표기는 「**어머님도 타락한 천사장의 핏줄을 받은 사람이에요. 선생님까지도 그래요, 선생님까지도. 그래서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 재창조해야 돼요**」 (말씀선집 419-102)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원리강론』에 「**마태복음의 서두를 보면 예수님의 조상에 4 음녀가 있음을 알 수 있다 . 이것은 만민의 구주는 죄악의 혈통을 통하여 죄 없는 인간으로 오셔서 죄악의 혈통의 후손을 구원하실 것을 보여 주시기 위함이었다**」 (538 페이지)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구세주는 참아버님도 참어머님도 두 분 다 「**죄악의 혈통을 통하여**」 태어나실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세주는 “혈통복귀”의 섭리에 의하여 「**죄 없는 인간 (무원죄) 으로**」 지상에 오셔서 「**죄악의 혈통의 후손**」을 혈통전환시키는 것입니다. 「**타락한 천사장의 핏줄을 받은 사람**」이란 그러한 뜻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역”에 기인된 비판에 속으면 안 됩니다.

(3)참어머님이 말씀하신 말씀은 「**원죄없이 태어난 독생자, 독생녀**」이다

그런데 참어머님은 전술한 바와 같이 참아버님도 참어머님도 **두 분 다 원죄없이 태어나셨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명확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천일국 5년 천력 3월 16월(2017년 양력 4월 12일), 참어머님은 「천지인참부모님 성혼 57주년 기념식」을 거행하셨고, 「**그러나 오늘 이날은 모든 만년을 극복하고 독생녀……. 2 천 년 전 예수 그리스도는 원죄 없이 태어났습니다. 독생녀도 원죄 없이 태어났습니다. 원죄 없이 태어난 독생자 독생녀가 하늘의 뜻을 받들어 어린양 잔치를 하는 날입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인류 앞에는 기쁨이요, 소망이요,**

희망이었습니다」 (『세계가정』 2017년 5월호, 6페이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어머님은 성혼 기념식의 날이란 「원죄 없이 태어난 독생자 독생녀가 하늘의 뜻을 받들어 어린양 잔치를 하는 날」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어린양 잔치를 하는 날」 이 문선명, 한학자 양위분의 「성혼기념의 날」 을 가리키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보면 「원죄 없이 태어난 독생자」 란 문선명 총재님을, 「원죄 없이 태어난 독생녀」 란 한학자 총재님을 의미하는 것은 명확합니다.

즉 참어머님이 공식 석상에서 말씀하신 「독생자 독생녀」 란 「원죄 없이 태어난 독생자 독생녀」 를 의미합니다.

(4) 「참어머님의 무원죄 탄생」 의 부정이야 말로 “비원리적”

①성신은 「인류의 모성신(母聖神)」 (『원리강론』 330 페이지)

-참아버님의 말씀 「하나님을 부정하면 재까닥 걸려요」

『원리강론』 150 쪽에 게재된 「말씀의 실체적 전개에 의한 피조세계와 복귀섭리표시도」 를 보면 장성기 완성급의 선 위에 「재림주」 라고 써져 있는데, 이것은 「참아버지」 를 뜻합니다. 같은 선 위의 옆에 「성신실체」 라고 써져 있는데, 이것은 「참어머니」 를 뜻하는 것입니다. 「재림주」 와 「성신실체」 가 장성기 완성급의 위에 써져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신」 에 대해서 『원리강론』 은 어떻게 논하고 있는지 명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원리강론』 에서 「성신」 에 관한 대표적인 논술을 발췌합니다.

「성신은 참어머니로서 후해와로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를 여성신(女性神)으로 계시받는 사람이 많다. 그리고 성신이 여성신이시기 때문에 성신을 받지 않고서는 예수님 앞에 신부로 설 수 없는 것이다」 (234 페이지)

「인류의 부성신(父聖神)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인류의 모성신(母聖神) 되신 성신을 복귀하여,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전인류를 다시 품어 중생(重生)시킴으로써, 완전복귀한다는 것을 표시한 것이었다」 (330 페이지)

「모세노정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한 낮(양)의 구름기둥은, 장차 이스라엘 민족을 세계적인 가나안 복귀노정으로 인도할 예수님을 표시하였고, 밤(음)의 불기둥은 여성신(女性神)으로서 그들을 인도할 성신(聖神)을 상징했던 것이다」 (335 페이지)

이상과 같이 『원리강론』 에서는 성신을 「여성신(女性神)」 「모성신(母聖神)」 등으로 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아버님은 참어머님의 환갑 때인 2003년 양력 2월 6일에 두 번째의 성혼식, 그리고 「가정왕 즉위식」 을 하시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아담 해와가 가정왕 즉위식을 못 했습니다. ……가정왕 즉위식을 했으니 하나님이 본래에 참부모를 중심삼고 혼인 신고를 할 수 있는 때를 맞았다 이거예요. ……문 총재 중심삼고 했어요. ……이제 영계에 가게 되면…. 지금까지 영계에는 하나님이 안 보였어요. 이제 가게 되면 영계의 부모의 입장에서 문 총재의 부부 얼굴이 나타나 가지고 휘황찬란한 빛으로서 보이기 때문에 얼굴을 바라볼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에 영계에 가셔도 참부모를 부정하겠어요? 이렇게 확실히 가르쳐 주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면 재까닥 걸려요」 (『패밀리』 2003 년 5 월호, 27 페이지, 말씀선집 406-241)

더군다나 참아버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담과 해와가 ……완성한 터전 위에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아 가정을 이루었더라면, 아담과 해와는 외적이요 형적인 실체 참부모가 되고, 하나님은 내적이요 종적인 실체 참부모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사랑을 중심삼고 아담과 해와에게 임재하심으로써 인류의 참된 부모, 실체의 부모로 계시다가 아담과 해와가 지상생애를 마치고 영계로 들어가면 그곳에서도 아담과 해와의 형상으로 그들의 체를 쓰시고 참부모의 모습으로 현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평화신경』 40~42 페이지)

이와 같이 완성한 아담과 해와가 영계에 가면 하나님은 그 아담과 해와(참부모)의 모습으로 현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의 성혼식 이후 참아버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영계에) 가게 되면 ……문 총재의 부부 얼굴이 나타나 가지고 휘황찬란한 빛으로서 보이기 때문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아버님의 모습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참어머님의 모습을 통하여서도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성혼식 이후 아버님이 말씀하신 참어머님의 입장이십니다. 이 말씀으로 알 수 있는 것처럼 아버님과 어머님은 각각 완성한 아담, 완성한 해와라는 것입니다.

반대파의 사람들은 「어머님을 신격화하고 있다」 「어머님은 이미 타락했다」 「어머님은 원래의 입장을 떠났다」라는 등으로 비판을 하고 있지만 완성한 아담과 해와는 「절대로 타락될 수 없다」라는 『원리강론』이 말하는 「원리」(92 쪽)에 따르면 참아버님과 참어머님 두 분은 이제는 타락하거나 원래의 입장을 떠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들의 비판은 비원리적인 것입니다.

참아버님은 「어머님은 성신입니다. 성신을 배반하면 용서를 못 받는 것입니다」(『참부모경』 47 페이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마태복음 12 장 32 절)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영계에 있어서도 「문 총재의 부부 얼굴이 나타나 가지고 휘황찬란한 빛으로서 보이기」는 하나님입니다. 아버님의 말씀에 따르면, 참어머님에 대해서 「어머님을 신격화하고 있다」 「어머님은 이미 타락했다」

「어머님은 원래의 입장을 떠났다」 등으로 비판하는 것은 “재까닥 걸리는” 행동으로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② 「중생론」으로 볼 때, 참어머님은 “무원죄 탄생” 이어야 한다

-어머님에게 원죄가 있었다라면 언제 「혈통전환되었는가」는 영원한 의문이 된다

『원리강론』의 「종말론」에는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은, 전인류의 참부모를 찾아 세워 가지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이 중생하여 선의 자녀가 됨으로써, 하나님의 창조본연의 대가족의 세계를 복귀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는 점이다」 (135 페이지) 라고 논하고 있습니다.

전인류가 “중생”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인류의 참부모」가 서 있어야 하는데, 「참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남자 한 사람으로는 될 수 없습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아담의 상대인 여자 (참어머니)가 있어야 합니다.

참아버님은 「(타락에 의하여) 하늘나라의 남자와 여자, 독생자 독생녀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 복귀섭리역사는 이것을 되찾는 역사입니다」 (『참부모경』 26 페이지), 「예수님이 독생자라 하였으니 하나님은 그 앞에 독생녀도 보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2 천년 역사는 신부를 찾는 역사입니다. 예수님은 참다운 아들의 모습으로 나타났지만 참다운 딸의 모습이 없으니 하나님의 뜻을 못 이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 천년 기독교 역사는 딸 (독생녀)을 찾는 역사입니다」 (『참부모경』 69 페이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원리강론』에서도, 「하나님은 아담만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배필로서 해와를 창조하셨다. 그러므로 동산 가운데에 창조이상을 완성한 남성을 비유하는 나무가 있었다면 그러한 여성을 비유하는 또 하나의 나무도 있었어야 할 것」 (75 페이지) 이라고 논하고 있습니다. 인류를 “중생”하는 데에 있어서 반드시 「참아버지」와 「참어머니」의 두 분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리강론』은 「아버지 혼자서 어떻게 자녀를 낳을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타락한 자녀들을 선의 자녀로 다시 낳아 주시기 위하여는 참아버지와 함께 참어머니도 계셔야 하는 것이다」 (234 페이지) 라고 논하고 있습니다.

만일 참어머님이 성혼하셨을 때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혈통”으로 다시 태어났다고 하면, 그것은 “아버지 혼자”로 다시 낳아 주셨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원리」에서 말하는 「중생론」과 엇갈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은 성혼하시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혈통” 이셨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만일 참어머님이 성혼하시기 이전에 「원죄」를 가지셨고, “사탄의 혈통”이었다고 하면, 아버지 혼자서 다시 낳아 주실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님은 언제, 어떻게 하셔서 “혈통전환”되었던 것인지, 영원한 의문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사실, 아버지가 혼자서 다시 낳아 주실 수 없으니까 참아버님은 「참어머니」가 없는 1960 년까지 혈통전환인 「축복결혼식」을 전혀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참어머니」가 계신 후에는 수많은 「축복결혼식」을 거행하셨던 것입니다.

참아버님은 성혼 이전부터 참어머님이 「타락하기 전 아담 앞에 있었던 해와」 「타락하기 전 해와」 「타락하지 않은 해와」 라고 하셨습니다.

「재림주님이 오실 때에는 무슨 잔치를 한다고 했어요? (「혼인잔치요」) ……혼인잔치는 결혼잔치입니다. 그렇지요? (「예」) 이런 말을 한다고 이단이라고 야단입니다. 괜히 배가 아파서.

혼인잔치, 즉 어린양 잔치를 하려면 예수님을 중심삼은 신부가 있어야 됩니다. 신부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신부가 누구냐 하면 해와입니다. 타락하기 전 아담 앞에 있었던 해와입니다. 재림주님은 3 차 아담입니다. 예수님은 2 차 아담이고, 앞으로 오시는 주님은 3 차 아담입니다. 그래서 3 차 아담이 타락하기 전 아담처럼 와가지고 타락하기 전 해와를 찾아야 됩니다. 타락하지 않은 해와를 찾아서 어린양 잔치를 해야 됩니다. 결혼함으로써 인류의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축복가정과 이상천국(I)』 432 페이지)

이 말씀에 「타락하기 전 해와를 찾아야 됩니다. 타락하지 않은 해와를 찾아서 어린양 잔치를 해야 됩니다」 라고 있는 듯이 참어머님은 결혼(어린양 잔치)을 하시고 나서 “타락하기 전 해와” “타락하지 않은 해와”가 되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와 반대로 「타락하기 전 해와」 「타락하지 않은 해와」를 참아버님께서 찾으신 후에 결혼(어린양 잔치)을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참아버님은 참어머님이 성혼하시기 전부터 타락하지 않은 해와, 즉 “하나님의 혈통”이란 사실을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음과 같은 말씀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의 참감람나무 표본을 보내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메시아사상이라고요. 그런데 참감람나무 메시아가 혼자 와 가지고는 안 돼요 ……메시아가 혼자 와 가지고는 참감람나무가 못 된다는 것입니다. 메시아 참감람나무와 메시아의 상대되는 참감람나무를 중심삼아 가지고 이것이 하나되어야만 참감람나무로서 놀음을 한다구요」 (『영원히 유일한 참부모』 68~69 페이지, 말씀선집 134-11)

「그것은 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완전한 아담이 생기면 완전한 해와가 복귀된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플러스가 나타날 경우에 완전한 마이너스는 자동적으로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창조의 원칙입니다 ……완전한 남성이 태어날 때에는 완전한 여성이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성서에서는 남자인 아담에 의해서 여자인 해와가 만들어졌다고 상징적으로 써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세계』 551~552 페이지)

이처럼 참아버님은 「참감람나무 메시아가 혼자 와 가지고는 안 돼요」 라고 말씀하시며, 「메시아의 상대되는 참감람나무」로 오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남성이 태어날 때에는 완전한 여성이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라는 것이 “창조의 원칙”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 위에 참아버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재림주님은 무엇을 하러 오시느냐? 재림시대는 완성기준의 시대이기 때문에 재림주님은 인류의 어머니를 찾으러 오시는 것입니다. 즉, 신부를 찾으러 오시는 것입니다. 신랑 되신 주님이 이 땅 위에서 찾으시는 신부는 타락권내에서 찾는 신부가 아닙니다. 타락하지 않은 순수한 혈통을 지니고 탄생한 분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신부, 즉 어머니는 어떠한 터전 위에서 태어나야 되느냐? 아벨적인 어머니의 터전 위에서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어머니는 타락한 해와의 입장에 해당하는 것이요, 그 다음 어머니는 예수시대에 있어서의 마리아의 입장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다음의 어머니는 예수시대 마리아의 보호를 받아 축복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죄의 인연과는 전여 상관이 없는 처녀로서 어머니(참어머니) 입장에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 중심으로 성사시켜 했지만 다 이루지 못하고 영적으로만 연결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복귀의 종말시대에 와서 이것을 재현시켜 가지고 다시 맞춰 나가는 작전을 펼쳐야 합니다」 (『축복가정과 이상천국(Ⅰ)』 669 페이지)

이와 같이 참아버님은 재림주가 찾으신 신부(참어머니)란 「타락권내에서 찾는 신부가 아닙니다. 타락하지 않은 순수한 혈통을 지니고 탄생한 분을 찾는 것입니다」 라고 하시며, 「죄의 인연과는 전여 상관이 없는 처녀」 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참아버님이 「죄의 인연과는 전여 상관이 없는 처녀」 라고 말씀하신 것이 극히 중요합니다. 만일 참어머니께서 아버님과 「약혼」이나 「성혼」을 하시는 것을 통해서 원죄를 청산하셨다고 한다면, 아버님이 「죄의 인연과는 전여 상관이 없는 처녀」 라고 말씀하시는 일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참어머니가 말씀하시는 「독생녀」의 말씀은 참아버님의 말씀입니다. 어머니가 아버님의 말씀에 반해서 함부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는 탄생하실 때부터 “무원죄”이시며, “하나님의 혈통”을 가지고 탄생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바야흐로 참어머니께서 참아버님과 함께 모든 것을 승리하시고, 영계에 계시는 아버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의 성취를 위해서 지상섭리의 최전선에서 나아가시고 계십니다.

20. 독생녀의 말씀은 진리이다 · 2

(1)기독교의 역사는 “독생녀”를 찾기 위한 역사

참아버님께서는 기독교의 역사를 독생녀를 찾기 위한 역사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독생자라하였으니 하나님은 그 앞에 독생녀도 보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2 천년역사는 신부를 찾는 역사입니다. 예수님은 참다운 아들의 모습으로 나타났지만 참다운 딸의 모습이 없으니 하나님의 뜻을 못 이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 천년 기독교 역사는 딸 (독생녀) 을 찾는 역사입니다」 (『참부모경』 69 페이지)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준비하는 그 독생녀란 성혼하시기 전부터 「타락하기 전 아담 앞에 있었던 해와」 「타락하지 않은 해와」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재림주님이 오실 때에는 무슨 잔치를 한다고 했어요? (혼인잔치요) ……혼인잔치는 결혼잔치입니다. 그렇지요? (예) 이런 말을 한다고 이단이라고 야단입니다. 괜히 배가 아파서.혼인잔치, 즉 어린양 잔치를 하려면 예수님을 중심삼은 신부가 있어야 됩니다. 신부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신부가 누구냐 하면 해와입니다. 타락하기 전 아담 앞에 있었던 해와입니다. 재림주님은 3 차 아담입니다. 예수님은 2 차 아담이고, 앞으로 오시는 주님은 3 차 아담입니다. 그래서 3 차아담이 타락하기 전 아담처럼 와가지고 타락하기 전 해와를 찾아야 됩니다. 타락하지 않은 해와를 찾아서 어린양 잔치를 해야 됩니다. 결혼함으로써 인류의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축복가정과 이상천국(I)』 432 페이지)

「재림주님은 무엇을 하러 오시느냐? 재림시대는 완성기준의 시대이기 때문에 재림주님은 인류의 어머니를 찾으러 오시는 것입니다. 즉, 신부를 찾으러 오시는 것입니다. 신랑되신 주님이 이 땅 위에서 찾으시는 신부는 타락권 내에서 찾는 신부가 아닙니다. 타락하지 않은 순수한 혈통을 지니고 탄생한 분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신부, 즉 그 어머니는 어떠한 터전 위에서 태어나야 되느냐? 타락한 세계의 아벨적인 어머니의 터전 위에서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어머니는 타락한 해와의 입장에 해당하는 것이요, 그 다음 어머니는 예수시대에 있어서의 마리아의 입장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다음에는 예수시대 마리아의 보호를 받아 축복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죄의 인연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처녀로서 어머니(참어머님)입장에 나갈 수 있는 어머니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축복가정과 이상천국(I)』 669 페이지)

참아버님은 재림주님이 이 땅 위에 찾으시는 신부(참어머님) 란 「타락하기 전 아담 앞에 있었던 해와」 「타락하기 전 해와」 「타락하지 않은 해와」 「타락권 내에서 찾는 신부가 아닙니다. 타락하지 않은 순수한 혈통을 지니고 탄생한 분」 이라고 말씀하시고 게다가 「죄의 인연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처녀」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말씀은 참어머님의 「혈통전환, 나는 모태부터다」 라고 하신 “독생녀” 의 말씀이 진리임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재림주님을 갈망해 왔지만 그와 함께 독생녀를 찾기 위한 기독교의 역사이었기도 합니다. 그것은 재림주님 혼자서는 「참부모」가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참아버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완전한 아담이 생기면 완전한 해와가 복귀된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플러스가 나타날 경우에 완전한 마이너스는 자동적으로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창조의 원칙입니다.……완전한 남성이 태어날 때에는 완전한 여성이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성서에서는 남자인 아담(갈비뼈)에 의해서 여자인 해와가 만들어졌다고 상징적으로 써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세계』 551~552 페이지)

참아버님은 「완전한 남성이 태어날 때에는 완전한 여성이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라고 하는 “창조의 원칙”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기독교 역사는 인류의 「참부모」를 맞이하기 위해서 재림주님을 갈망하며 또 한편으로는 독생녀를 준비하기 위한 역사이기도 했습니다.

(2) 인간시조 「영적 타락만 있을 때의 구원섭리」에 대하여

①인류역사의 목적은 「에덴동산」을 복귀하는 것

『원리강론』의 「종말론」에는 「인류역사의 목적은 생명나무를 중심한 에덴동산을 복귀하려는 데 있다」고 논하고 있습니다.

「인류역사의 목적은 생명나무를 중심한 에덴동산을 복귀하려는 데 있다.……인간조상(아담과 해와)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명나무』를 중심하고 세우려던 에덴동산은 사탄에게 내주게 되었었다. 그래서 알파로 시작된 인류 죄악역사가 오메가로 끝날 때의 타락인간의 소망은, 죄악으로 물든 옷을 깨끗이 빨아 입고 복귀된 에덴동산으로 다시 들어가 잃어버렸던 그 『생명나무』를 다시 찾아 나아가는 데 있다…….

……『생명나무』는 완전한 아담 곧 인류의 참아버지를 말하는 것이다.……역사의 목적은 『생명나무』로 오실 예수님을 중심한 창조본연의 에덴동산을 복귀하려는 데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121~122 페이지)

이렇게 『원리강론』에는 「인류역사의 목적은 생명나무를 중심한 에덴동산을 복귀하려는 데 있다」고 합니다. 생명나무이신 메시아가 지상에 강림하신다는 것은 「에덴동산」이 복귀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에덴동산에는 아담뿐만 아니라 해와도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아담만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배필로서 해와를 창조하셨다. 그러므로 동산 가운데에 창조이상을 완전한 남성을 비유하는 나무가 있었다면 그러한

여성을 비유하는 또 하나의 나무도 있었어야 할 것」 (『원리강론』 75 페이지)

에덴동산에는 아담뿐만이 아니라 해와도 있어야 합니다. 인간조상인 아담과 해와가 「에덴동산」에서 쫓겨난, 소위 「실낙원(失樂園)」은 육적 타락이 일어나 아담까지 타락한 후의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귀섭리에 있어서 메시아 탄생은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메시아(생명나무)를 지상으로 보내신다는 것은 **지상에 「에덴동산」이 재현된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류역사의 출발점을 크게 나눈다면 다음 세가지가 되겠습니다. ①「아담과 해와가 전혀 타락하지 않았을 때」 ②「아담은 타락하지 않았지만 해와만 영적 타락을 했을 때」 ③「아담과 해와가 다 타락했을 때」입니다.

아담과 해와 둘이 에덴동산에서 쫓겨난 “실낙원”은 그 중에서 ③의 「**아담과 해와가 다 타락했을 때**」가 됩니다. 그러므로 해와가 영적 타락을 했어도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을 때 아직 둘은 「에덴동산」 내에 있었습니다. 그때 영적 타락을 한 해와에 대한 구원섭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②인간조상의 「영적 타락만 있을 때의 구원섭리」에 대하여

에덴동산 내에 있는 해와는 “무원죄”이며 “하나님의 혈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에덴동산에 있는 해와는 영적 타락만 했어도 아직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닿는 권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UCI 나 생츠퍼리교회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어머님은 무원죄로 탄생되신 분이 아니다**」라고 하며 참어머님의 무원죄 탄생을 부정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말씀 중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아담이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타락했으므로 그 책임을 완성한 기준에서기 위해서는 **해와를 타락권으로부터 복귀해서 재창조하고** 선한 딸로 섰다는 기준에서지 못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담의 완성권**을 복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참부모의 절대가치와 종족적메시아의 길』 일본어, 38 페이지, 1972.4.30. 동경본부)

「참어머니를 사탄에게 빼앗겼기 때문에 **(메시아는) 사탄세계에서 죽기를 각오하고라도** (참어머니를) **빼앗아 와야** 합니다」 (『축복가정과 이상천국(I)』 416 페이지)

참아버님은 하늘부모님(하나님)과 완전일체가 되시어서 그분이 하신 말씀에는 모순이 없습니다. 전술한 아버님의 말씀에 있듯이 참어머님은 “독생녀”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2가지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입니까?

참아버님은 「**아담이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타락했으므로...**」라고 하신

내용과 「참어머니를 사탄에게 빼앗겼기 때문에 (메시아는) 사탄세계에서 죽기를 각오하고라도……」 라고 하신 말씀이 있듯이 이러한 말씀은 「에덴동산」에서 일어난 타락의 문제에 대한 “메시아 (아담) 자신에 의한 탕감” “메시아 (아담) 자신의 책임”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리강론』에는 실낙원(失樂園) 되기 전 「에덴동산」에 있어서도 만약 아담이 타락하지 않고 완성하였더라면 복귀섭리는 대단히 용이했을 것이었다고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습니다.

「해와는 (영적) 타락되었다 할지라도 만일 아담이 타락된 해와를 상대하지 않고 완성되었더라면, 완성한 주체가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대상인 해와 하나에 대한 복귀섭리는 대단히 용이했을 것이었다. 그러나 아담마저 타락하였기 때문에 사탄의 혈통을 계승한 인류가 오늘날까지 번식하여 내려온 것이다」 (89 페이지)

이 『원리강론』의 논술은 말하자면 「영적 타락만 있을 때의 구원섭리」라고 설명할 수 있고, 만일 해와가 「영적 타락」만을 했고 만약 아담이 성장기간을 통과해서 “완성된 아담”이 되었더라면 복귀섭리는 대단히 용이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이 완성하지 못하고 「육적 타락」을 함으로 「사탄의 혈통을 계승한 인류가 오늘날까지 번식하여 내려온 것」이 됩니다. 결국 에덴동산에 있는 아담은 해와를 천사장으로부터 되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인류역사의 종말기에 있어서 메시아가 오신다면 메시아는 지상세계의 「에덴동산」 내에 있어서 인간조상인 아담이 다하지 못했던 책임을, 상술한 「영적 타락만 있을 때의 구원섭리」의 내용을 “탕감복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낙원(失樂園) 되기 전 「에덴동산」 내에 있던 해와는 “영적 타락”을 했어도 그 시점에 있어서는 아직 「원죄」를 가지고 있지 않고, 「사탄의 혈통」에도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즉 원죄란 「인간조상이 저지른 영적 타락과 육적 타락에 의한 혈통적인 죄」 (『원리강론』 98 페이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해와의 영적 타락만으로는 해와의 “자범죄”이며 「혈통적인 죄」는 안 되어 있어서 아직은 「원죄」가 아닙니다. 사실 영적 타락의 시점에 있어서 아직 「실낙원」이 일어나지 않았고 아담이 완성하여 해와를 구원한다면 「실낙원」은 절대로 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타락」이 일어났던 시점에서 아담과 해와는 아직 「에덴동산」 내에 있는 상황입니다.

또 참아버님은 「사랑에는 종적 사랑과 횡적 사랑이 있습니다. 부자관계는 종적 사랑이고 부부관계는 횡적관계입니다. 종적 사랑은 혈통적으로 연결되어 부부관계는 혈통적으로 연결이 안 됩니다」 (『방한(訪韓)수련회 말씀』 12 페이지) 라고 하신 것처럼 천사장과 해와의 영적 타락은 횡적 사랑의 문제로서의 “거짓 부부관계”이며 그 시점에서는 해와는 「사탄의 혈통」으로 아직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님이 「장자 (아담) 가 서자와 같이 되었습니다. 핏줄이 달라졌습니다. 본연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혈통을 이어받아야 하는데, (육적)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탄) 핏줄을 이어받았습니다」 (8 대교재·교본『천성경』 186 페이지)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조상 아담과 해와가 「육적 타락」을 함으로서 「사탄을 중심하고 사위기대를 이우었기 때문에, 사탄을 중심한 삼위일체」가 되어 사탄의 혈통으로 연결이 되었던 것입니다 (『원리강론』 237 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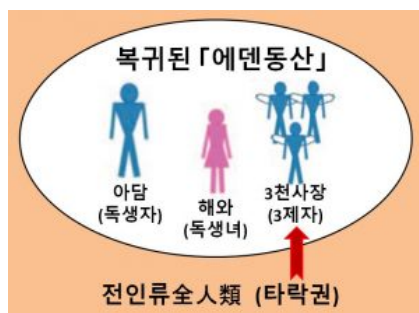
그러므로 『원리강론』에서 논하는 바와 같이 육적 타락으로 사탄을 중심한 “악한 삼위일체”를 이루기 이전의 영적 타락만 있을 때의 시점에서는 사탄의 혈통으로 연결이 안 되어 있어서 「복귀섭리는 대단히 용이했을 것이었다」 (89 페이지) 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이 지상에 오신다면 지상세계에 있어서 복귀된 「에덴동산」에서 인간조상인 아담자신이 이루지 못한 「해와를 타락권으로부터 복귀해서 재창조하고…」 「사탄세계에서 죽기를 각오하고라도 빼앗아 와야……」 라는 「영적 타락만 있을 때의 구원섭리」를 메시아 자신이 아담을 대신하여 탕감복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③ 「타락권으로부터……」 「사탄세계에서……」 라는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런데 지상에 있어서 복귀(재현)된 「에덴동산」에는 인간조상 때와 같이 거기에 메시아(아담)와 3 명의 천사장 및 독생녀(해와)가 존재하게 됩니다【도표를 참조】. 그리고 복귀된 「에덴동산」 내에 있는 독생녀는 역시 인간조상 때와 같이 성혼하기 천부터 「하나님의 혈통」이며 「무원죄」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전술한 참아버님의 말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귀(재현)된 「에덴동산」에 있는 3 명의 천사장에 대해서는 세례 요한적 인물을 비롯하여 「메시아를 위한 기대」로서 메시아 자신이 “사탄세계” “타락권” (타락 인류)와 싸워서 승리하여 그것을 다시 찾아와야 할 기대입니다. 전술한 말씀의 「해와를 타락권으로부터 복귀해서…」 「사탄세계에서 죽기를 각오하고라도 빼앗아 와야…」 라는 경우의 「타락권」 「사탄세계」란 바로 메시아자신이 싸워서 자연굴복시켜서 되찾는 “3 명의 천사장”의 상황 그대로를 가리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타락권」 「사탄세계」란 구체적으로는 타락한 천사장권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곳에서 되찾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3 명의 천사장”의 기대가 확립하면 「에덴동산」이 재현되어, 독생녀가 현현하는 조건이 갖추어지는 것이고, 해와 그 자체가 「타락권」(타락하고 있음) 「사탄세계」(사탄의 혈통) 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에덴동산」 내에 있는 해와는 무원죄이며 하나님의 혈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는 죽기를 각오하고 사탄과 싸워 승리함으로 3 명의 천사장권을 자연굴복시켜서 「메시아를 위한 기대」 (3 제자)를 확립하지 않는 한, 천사장권 (「타락권」 「사탄세계」)에서 해와를 빼앗아 오고 「성혼식」을 올릴 수

없습니다. 이러한 2 가지 말씀은 “메시아(아담) 자신에 의한 탕감” “메시아(아담) 자신의 책임”에 대하여 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편 참아버님이 전술한 말씀에 나와 있듯이 「참어머니」가 되실 「에덴동산」내에 있는 독생녀는 「타락하지 않은 순수한 혈통을 지니고 탄생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 「독생녀」(해와)의 경우도 인간조상인 해와가 「에덴동산」에서 탕감하지 못하고 역사적으로 남긴 “영적 타락”의 문제를 타락한 해와를 대신하여 “탕감” (「영적 타락만 있을 때의 구원섭리」)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참어머니가 1960 년 성혼하신 후 “하나님의 날” 선포까지의 7 년 동안 고난의 노정을 걸어가신 것은 인간조상인 해와를 대신하여 “탕감” 하시고 “독생자 (재림메시아)” 앞에 완전상대인 “독생녀”로서 서기 위함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참어머니가 「영적 타락만 있을 때의 구원섭리」를 해와를 대신하여 “탕감” 하신다고 해도 그것은 어머니 자신이 「영적 타락」을 하셨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영적 타락」의 죄를 범한 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조상인 해와이기 때문에 어머니는 그 해와를 대신해서 「영적 타락」을 “탕감” 하신 것입니다.

참어머니는 「무원죄」이시며 「하나님의 혈통」이시기 때문에 장성기 완성급을 무난히 넘으시고 완성기의 7 년노정을 인간조상 해와를 대신하여 걸어가심으로 참아버님 (아담) 과 함께 승리하신 인류의 「참부모」가 되신 것입니다.

(3) 어머니는 「하나님을 뿌리로 ……나타난 주인공」

『원리강론』은 「아버지 혼자서 어떻게 자녀를 낳을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타락한 자녀들을 선의 자녀로 다시 낳아 주시기 위하여는 참아버지와 함께 참어머니도 계셔야 하는 것이다」 (234 페이지) 고 논하고 있습니다. 즉 중생하는데는 「참아버지」와 「참어머니」 두 분이 꼭 필요합니다. 이미 설명했 듯이 만일 참어머니가 약혼이나 성혼하셨을 때 원죄를 청산하고 처음으로 “하나님의 혈통”으로 거듭 태어났다면 그것은 “아버지혼자”서 거듭 태어나게 했기 때문에 「원리」에서 설명하는 「중생론」과는 맞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어머니는 약혼이나 성혼하시기 전부터 “하나님의 혈통” 이었다는 결론에 귀결되는 것입니다.

사실 참아버님은 참어머니에 대하여 「하나님을 뿌리로 해 가지고 비로소 역사상에 ……나타난 주인공」 이라고 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통일교회의 문선생을 뭐라고 그래요? (「참부모님」) 참아버지라고 그러지요? 여기에 있는 한학자씨는? (웃음) (「참어머니」) 참어머니라고 그래요? (「예」) 참아버지라고 그래요? (「예」) 아무리 봐야 눈도 둘, 코도 같은데 뭐가 달라요? 뿌리가 달라요, 뿌리가. 여러분들은 사탄세계의 타락한 부모를 통한 타락의 뿌리를 타고 나왔지만, 통일교회의 문아무개와 여기에 문학자, 문학자지요? (웃음) 세계에 문학자가 너무 많으면 안 되니 한학자, 단 하나의 학자…. 학자님은 뿌리가 다르다구요.

하나님을 뿌리로 해 가지고 비로소 역사상에 참다운 사랑의 논리를 중심삼은 통일논리를 갖고 나타난 주인공이라구요」 (말씀선집 148-40~41)

이렇게 참아버님은 우리들에게는 「여러분들은 사탄세계의 타락한 부모를 통한 타락의 뿌리를 타고 나왔」다고 말씀하시고, 그 “대비(對比)”로서 「통일교회의 문아무개와 여기에 ……한학자, 단 하나의 학자… 학자님은 뿌리가 다르다」고 말씀하시고, 참어머님은 「타락의 뿌리」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뿌리로 ……나타난 주인공」 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아버님은 참어머님 (한학자 여사님) 이 타락하지 않은 순수한 혈통을 지니고 탄생한 분이라고 말씀하셨고, 게다가 어머님도 아버님과 같이 「하나님을 뿌리」로서 태어나신 분이라는 사실을 밝혀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참어머님이 말씀하신 「독생녀」의 말씀이 진리인 사실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